



차 례

Contents

이슈와 진단

충남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변화와 시사점 : 1차 산업	02
-------------------------------	----

중국 지역별 정책 동향

1. 랴오닝성, 중의약(中醫藥) 건강양로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18
2. 톈진시, 항공해안 대통관기지(航空口岸大通關基地) 건설 착공	19
3. 허베이성, 현대화 농업단지 건설 추진	21
4. 상하이, 중소기업 서비스 클라우드 사업 추진	23
5. 중국 지방정부 국제 교류 동향	24

현대중국의 이해

마오쩌둥과 린바오의 연합	27
	28

충남 속의 중국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과 소장방, 그리고 백제의 한(恨)	39
	40

충청중국포럼 소식

제30·31회 충청중국포럼	46
	47

발간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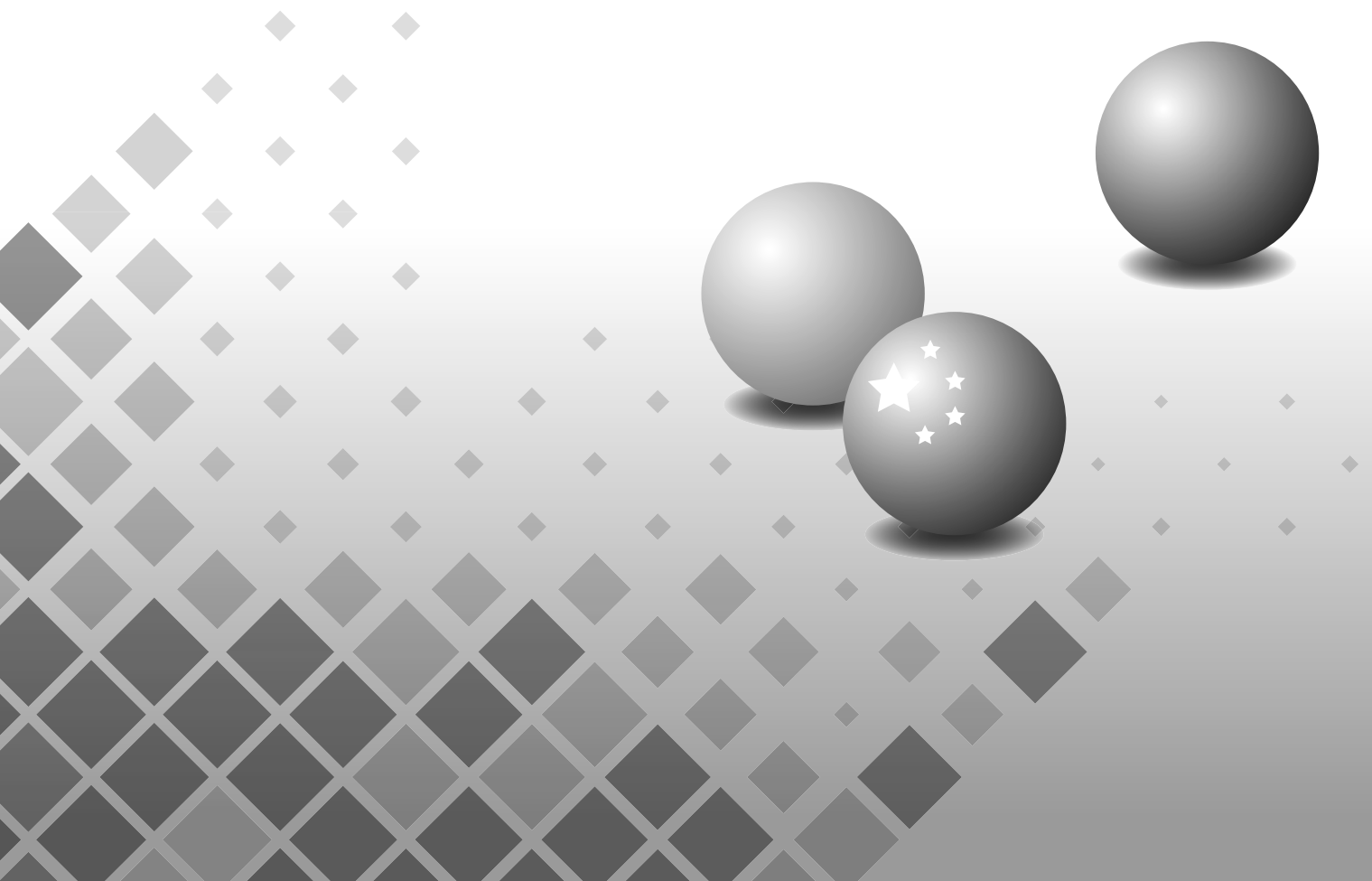
	52
--	----



충남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변화와 시사점 : 1차 산업

송영현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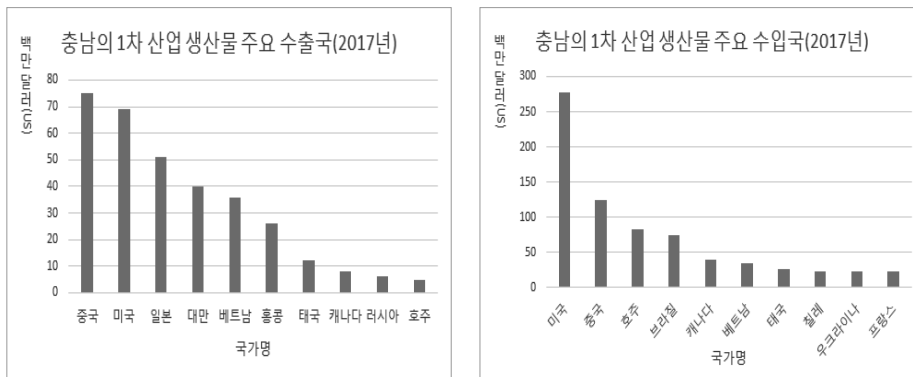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중국은 충남 1차 산업 분야의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7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이슈와 진단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농, 축, 임, 수산업 분야의 충남-중국 간 수출입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충남 1차 산업의 주요 교역대상으로 자리 잡은 중국

- 중국은 충남 1차 산업 생산물의 가장 중요한 교역대상국 중 하나로 성장하였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 함께 충남 제1의 농, 축, 임, 수산물 교역 대상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2010-17년 기간 동안 충남 제1의 1차 산업 생산물 수출 대상국으로서의 지위를, 2000년대 중반부터 2017년까지 충남 제2의 1차 산업 생산물 수입 대상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1> 충남의 1차 산업 생산물 주요 수출입국(2017년)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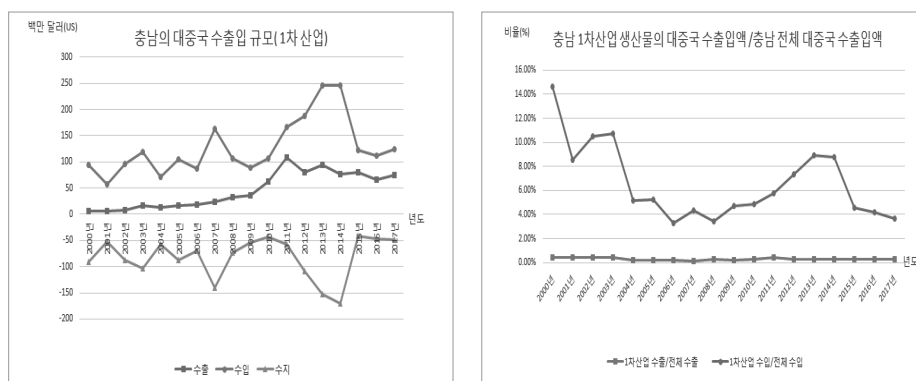
- 2017년 기준 농, 축, 임, 수산물 등 충남 1차 산업 생산물의 대중국 수출금액은 미화 약 7,500만 달러 규모이다.

2017년 기준 충남의 대중국 수출총액은 약 241억 7,200만 달러로, 충남 1차 산업 생산물의 대중국 수출액이 충남의 대중국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3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2017년 충남의 해당분야 대중국 수출액은 수출 초기인 2000년에 비해 약 12.5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기간 충남 전산업 중국 수출규모가 약 15.5배 성장한 것과 비교해도 작지 않은 수준이다.

2000-11년 기간에 꾸준한 수출 증가세 나타났으나, 2012-17년 기간 동안에는 소폭의 상승·하락세가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다.

- 2017년 기준 충남 1차 산업 생산물의 대중국 수입금액은 미화 약 1억 2,400만 달러 규모이다. 2017년 기준 충남의 대중국 수입총액은 약 33억 9,900만 달러로, 충남 1차 산업 생산물의 대중국 수입액이 충남의 대중국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65%이다. 2017년을 기준으로 충남 1차 산업 생산물의 대중국 수출규모에 비해 수입규모가 약 1.6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해당산업분야의 대중국 무역에서 충남은 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기별로 적자 규모의 차이는 존재하나 2000년 이후 충남과 중국 간의 해당분야 무역은 기본적으로 적자구조였다. 한편, 충남 1차 산업 생산물의 대중국 수입규모 증가폭은 상당히 적은 편으로, 2017년 이 분야 대중국 수입액이 수입 초기인 2000년에 비해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간 충남 전체 대중국 수입규모가 약 5.2배 성장한 것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작은 편임을 알 수 있다. 2000-14년까지 충남 1차 산업 생산물의 중국 수입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세 나타냈으나, 2015년에 급격히 하락한 이후 현재까지 보합세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충남 1차 산업 생산물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변화(2000-17년)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활용하여 저자 작성

II. 품목별 수출입구조 변화와 특징

1. 농·축·임·수산물의 수출입 현황

- 2017년 기준 충남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액은 미화 약 4,000만 달러이며 수입액은 미화 약 7,200만 달러이다.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볼 때, 수입액에 비해 수출액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0-11년 기간 동안 충남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2년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나타났다. 2000-17년 기간 충남 농산물의 대중국 수입액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2017년 기준 충남 축산물의 대중국 수출액은 미화 약 1,600만 달러이며 수입액은 미화 약 1,200만 달러 수준이다.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볼 때, 수입액과 수출액 변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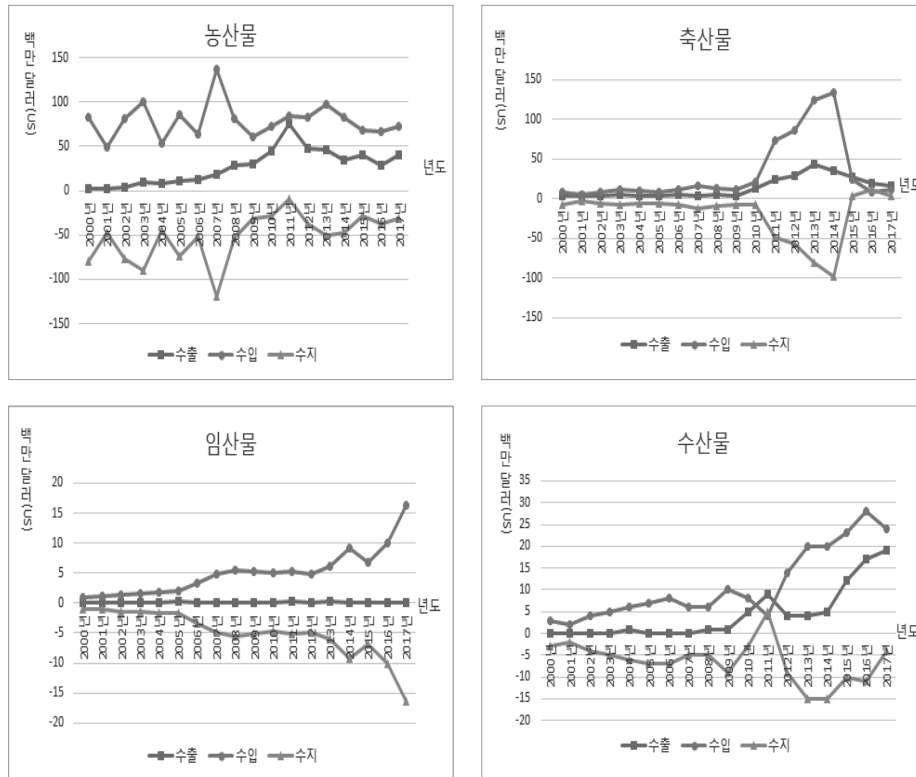
2000-13년 기간 동안 충남 축산물의 대중국 수출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나타났다. 한편, 모(毛)류 수입의 증가로 2010-14년 기간 충남 축산물의 대중국 수입액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5년 급감한 이후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2017년 기준 충남 임산물의 대중국 수출액은 미화 약 7만 달러이며 수입액은 미화 약 1,600만 달러 수준이다.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볼 때, 대중국 수출활동은 여전히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수입액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0-17년 기간 동안 충남 임산물의 대중국 수출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동기간 충남 임산물의 대중국 수입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 나타나고 있다.

- 2017년 기준 충남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액은 미화 약 1,900만 달러이며 수입액은 미화 약 2,400만 달러이다.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볼 때, 수출·수입액 모두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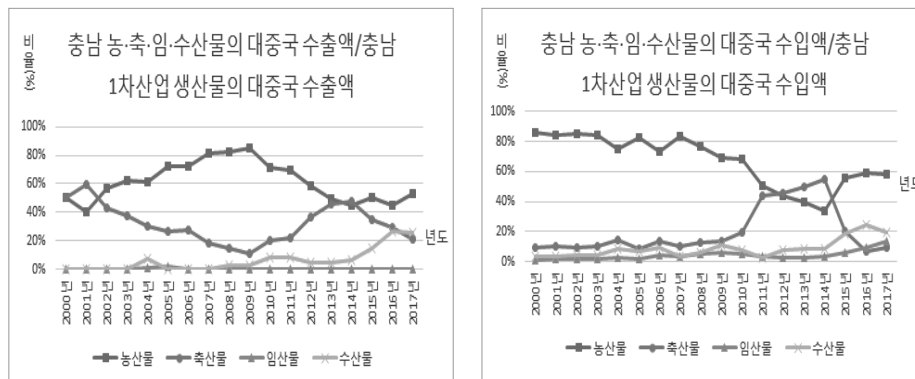
또한 2000-17년 기간 동안 충남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수입액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충남 농·축·임·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입 규모(2000-17년)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017년 현재 충남 1차 산업 생산물의 대중국 수출액 중 농산물의 비중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산물과 수산물의 비중은 각각 21%, 25%로 나타났다.
농산물의 중국 수출량이 전체 1차 산업 생산물의 중국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대 들어선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동기간 수산물의 비중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편이다.
- 2017년 현재 충남 1차 산업 생산물의 대중국 수입액 중 농산물의 비중이 약 58%로 나타났으며,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의 비중이 각각 19%, 10%,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의 중국 수입량이 전체 1차 산업 생산물의 중국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14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나, 2015년 이후 재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축산물의 비중은 2000-14년 기간 동안 지속 증가하였으나 2015년부터 급격히 줄어들었다. 수산물과 임산물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4> 충남 1차 산업 생산물의 대중국 수출입액 대비 농·축·임·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입액 비중(2000-17년)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농산물 세부 품목별 수출입구조 변화와 특징

- 2000-17년 기간 충남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은 기호식품, 산식물, 농산가공품 등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수입은 산식물, 곡실류, 농산가공품, 식물성 물질, 식물성 재료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충남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2000-17년 기간의 누적 수출액이 미화 약 3억 200만 달러 규모에 달했던 기호식품으로 나타났다. 인삼, 음료 품목이 기호식품의 대중국 수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삼의 비중이 매우 큰 편이었다.

산식물, 농산가공품의 경우 2000-17년 기간의 누적 수출액이 각각 미화 약 1억 1,500만 달러, 3,5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남 농산물의 대중국 수입에서 가장 비중이 큰 품목들은 2000-17년 기간의 누적 수출액이 각각 미화 약 2억 8,300만 달러, 약 1억 5,300만 달러 규모에 달했던 산식물, 곡실류 등으로 나타났다.

- 2000-17년 기간 동안 충남 농수산물 중 대중국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은 농산가공품으로 나타났으며 대중국 수입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은 곡실류, 산식물, 농산가공품 등으로 나타났다.

농산가공품의 대중국 수출입 증가세는 비교적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곡실류, 산식물의 경우 매우 가파른 수입 증가세를 보였다.

- 한편, 2010년대 들어 충남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효자품목인 기호식품의 수출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류 식품으로 대표되는 기호식품은 다양한 품목의 충남 농수산물 중 유일하게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는 품목이었으나, 2010년대 들어 수출 감소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규모 역시 상당한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5> 충남 농산물 세부 품목별 대중국 수출입 규모(2000-17년)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축산물 세부품목별 수출입구조 변화와 특징

- 2000-17년 기간 충남 축산물의 대중국 수출·수입은 모류, 축산가공품 등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충남 축산물의 대중국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2000-17년 기간의 누적 수출액이 각각 미화 약 1억 2,900만 달러, 약 1억 1,700만 달러 규모에 달했던 모류와 축산가공품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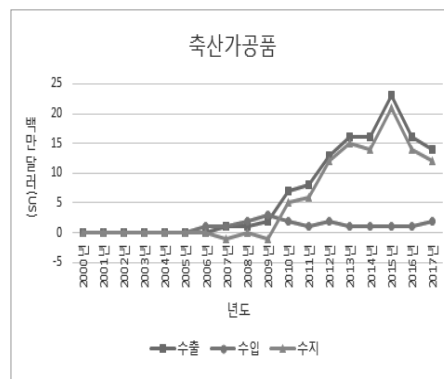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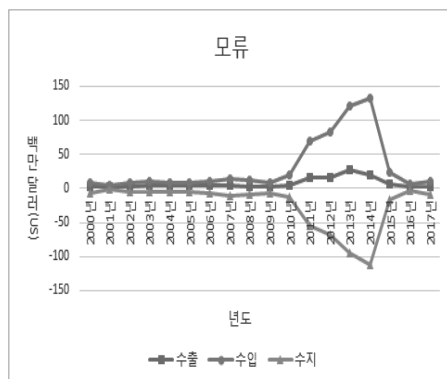
한편, 충남 축산물의 대중국 수입에서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모류로 나타났으며 모류의 2000-17년 기간 누적 수입액은 미화 약 5억 6,400만 달러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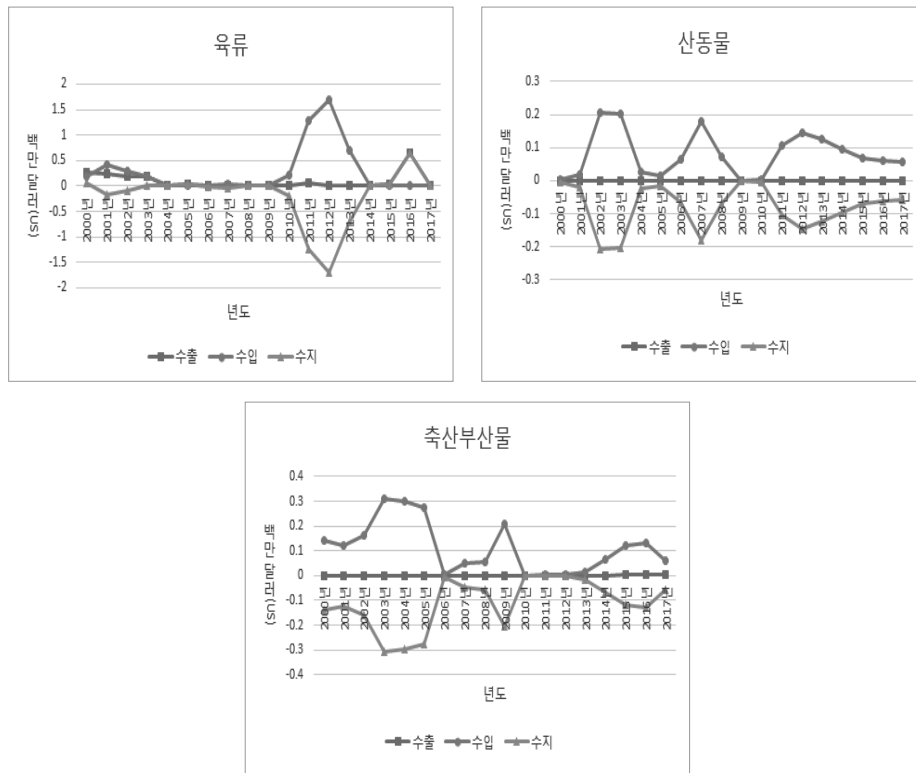
- 2010-14년 기간 동안의 충남-중국 간 솜털, 충전재용 깃털 등 모류 수출입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5년부터 수출입 규모가 급감하기 시작하여 2017년 현재 모류 수출입 총액은 미화 약 1,300만 달러에 불과하다.

특히 충남의 대중국 모류 수출액에 비해 수입액의 감소폭이 매우 큰 편으로 나타났다.

- 한편, 2006-15년 기간 동안 충남 축산가공품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2016, 17년 동안 수출규모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단, 이러한 결과는 동 시기에 사드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같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6-15년 기간 축산가공품의 대중국 수출량 증가는 우유, 분유제품 등 낙농품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충남 축산가공품의 대중국 수출구조 변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수출량 감소세가 나타난 시기와 사드 갈등 발생 시기가 겹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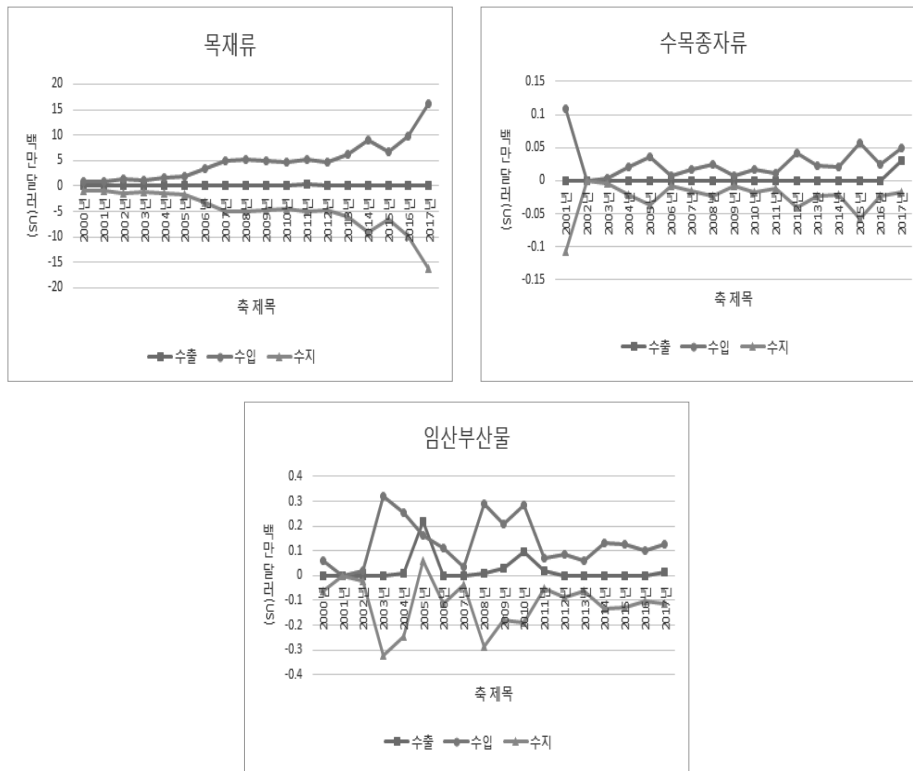


<그림 6> 충남 축산물 세부 품목별 대중국 수출입 규모(2000-17년)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활용하여 저자 작성

4. 임산물 세부품목별 수출입구조 변화와 특징

- 2000-17년 기간 충남 임산물의 대중국 수입은 목재류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수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충남 임산물의 대중국 수입에서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목재류로 2000-17년 기간의 누적 수입액이 미화 약 8,800만 달러에 달하였다. 동기간 충남 임산물의 대중국 수출총액은 미화 약 160만 달러에 불과했다.
- 한편, 2000-17년 기간 동안의 수목종자류, 임산부산물 수출입 규모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충남 임산물 세부 품목별 대중국 수출입 규모(2000-17년)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활용하여 저자 작성

5. 수산물 세부품목별 수출입구조 변화와 특징

- 2000-17년 기간 충남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은 해조류, 수산가공품 등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수입은 어류, 수산가공품, 연체동물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충남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2000-17년 기간의 누적 수출액이 미화 약 4,500만 달러 규모에 달했던 해조류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충남 김의 대중 수출량 증가가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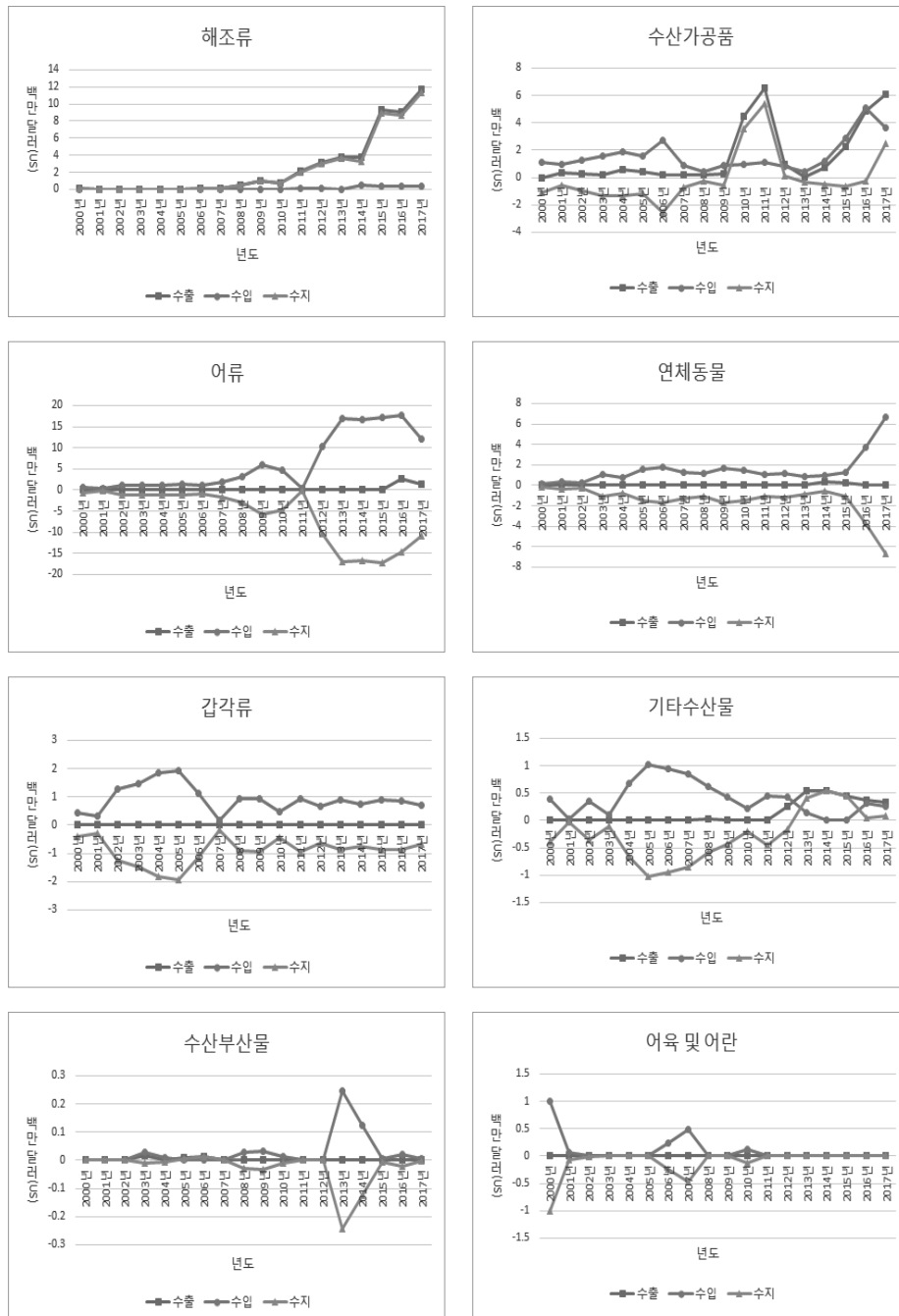
또한 충남 해조류의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출 증가가 무역흑자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충남 수산물의 대중국 수입에서 가장 비중이 큰 품목들은 2000-17년 기간의 누적 수입액이 각각 미화 약 1억 1,300만 달러, 약 2,900만 달러, 약 2,700만 달러였던 어류, 수산가공품, 연체동물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상가품목들의 대중국 수입 증가세 큰 편이다.

1) 2017년 충남 김의 대중 수출량은 미화 약 660만 달러 수준으로 충남 전체 해조류 대중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 충남 수산가공품의 대중국 수출은 2010년 전후 단기적으로 큰 폭의 증가, 감소세를 보이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3-17년 기간 동안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어류 가공품, 염장식품, 해삼 가공품 등의 수출량 증가에 힘입어 충남수산가공품의 대중국 수출은 2017년 무역수지 흑자구조로 전환되었다.



<그림 8> 충남 수산물 세부 품목별 대중국 수출입 규모(2000-17년)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www.kita.net) 활용하여 저자 작성

III. 수출경쟁력 분석

- 국별 비교우위지수(CAC : Comparative Advantage by Country)를 활용하여 충남 1차 산업 품목별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김양중 외(2015)에 따르면, CAC지수는 특정품목이 다른 나라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는지 평가하는 지수로서, 수출대상 국가를 특정하여 수출경쟁력을 분석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 CAC지수의 산출방식과 산출결과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CAC지수는 한 국가(지역)에서 특정 국가로의 전체 수출 중에서 특정품목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해당 국가(지역)의 총 수출에서 동 품목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것으로 특정상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데 활용되며, 판단의 기준 값은 1로 한다. 값이 1보다 클 경우 해당국가(지역)의 특정품목이 다른 나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

$$CAC_{ic}^j = \frac{(E_{ic}^j / E_{ic})}{(E_i^j / E_i)}$$

E_{ic}^j = i 국(충남)의 j 품목 c 국(중국)수출액

E_{ic} = i 국(충남)의 c 국(중국)총 수출액

E_i^j = i 국(충남)의 j 품목 수출액

E_i = i 국(충남)의 총 수출액

- 본 장에서는 MTI 3단위³⁾로 분류된 24개 농, 축, 임, 수산물 품목의 2000, 2005, 2010, 2015, 2017년도 CAC지수값을 도출하였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충남 농산물 중 대중 수출량이 많은 기호식품, 농산가공품의 CAC지수값은 높지 않은 편으로, 향후 해당 품목의 대중국 수출경쟁력 제고가 요구된다. 반면 산식물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출경쟁력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기호식품과 농수산가공품의 CAC지수값이 1 이상인 적은 없었으

2) 모수원(2017)은 CAC지수는 수입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따른 본국의 수출경쟁력 변화를 다루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한 지수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3) MTI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가 우리나라의 산업별 수출입 통계를 분석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관세율 책정 및 관세부과 측면의 장점을 가진 HS코드와는 달리, 산업·경제 측면에서의 무역 통계 분석에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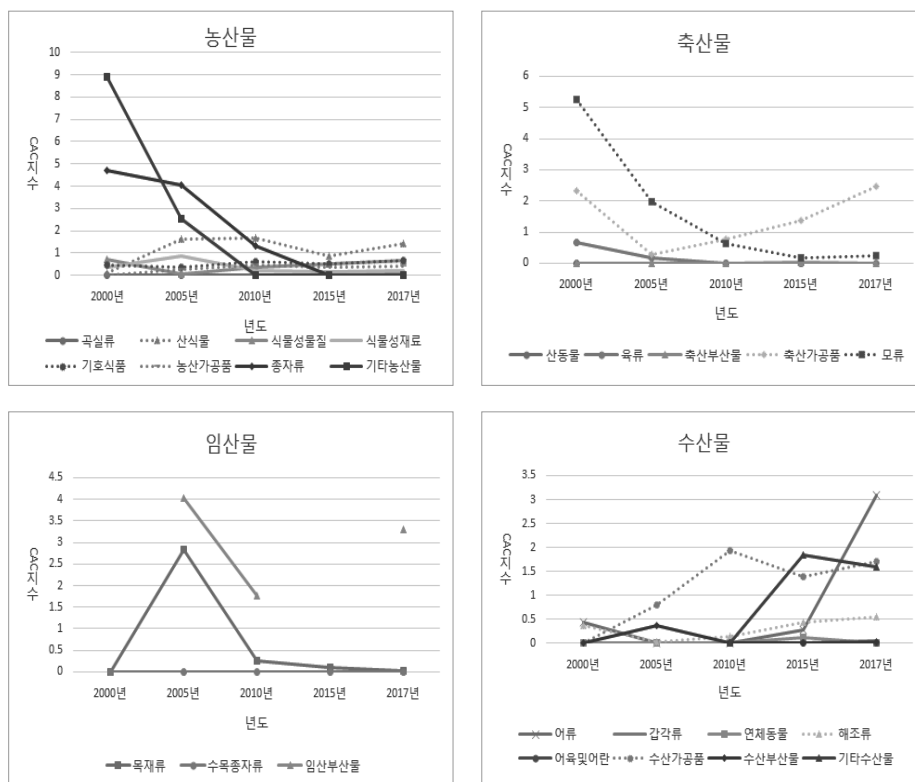
며 뚜렷한 증가세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 충남 축산물 중 대중 수출량이 많은 축산가공품의 경우, 2005년 이후 CAC지수값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충남의 축산가공품이 충분한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모류의 경우 2000년대 이후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충남 수산물 중 대중 수출량이 많은 수산가공품의 CAC지수값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나 해조류의 CAC지수값은 높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 이후 해조류의 CAC지수값 증가세가 확연해 해조류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지속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충남 농·축·임·수산물 세부 품목별 CAC지수(2000, 05, 10, 15, 17년)

주1. 2000-2017년 기간 대중국 누적 수출액 규모가 큰 품목은 점선으로 표기함.
주2. 임산물의 경우 지수 계산 시 분자 분모가 모두 0이어서 결과 도출되지 않은년도 존재함.

Ⅳ. 종합 및 시사점

- 분석을 통해 중국이 농, 축, 임, 수산물 등 충남 1차 산업 생산물의 가장 중요한 교역 대상국 중 하나로 성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산물과 축산물의 경우 2000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대중국 수출액이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하락하는 추세 나타났다. 대중국 수입액의 경우, 충남 농산물의 대중국 수입은 시기별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축산물의 경우 2010-14년 기간 대중국 수입이 크게 늘어났으나 2015년 급감한 이후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충남 임산물의 대중국 수출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산물의 경우 2000-17년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나타나고 있다. 반면 동기간 충남 임산물과 수산물의 대중국 수입은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 나타나고 있다.

- 세부 품목별 대중국 수출입 구조를 분석한 결과, 충남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은 기호식품, 산식물, 농산가공품 등 품목을 중심으로, 축산물은 모류, 축산가공품 등 품목을 중심으로, 수산물은 해조류, 수산가공품 등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충남 농산물의 대중국 수입은 산식물, 곡실류, 농산가공품 등 품목을 중심으로, 축산물은 모류, 축산가공품 등 품목을 중심으로, 임산물은 목재류 중심으로, 수산물은 어류, 수산가공품, 연체동물 등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 CAC지수를 통해 충남 1차 산업 생산물의 세부 품목별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충남 농산물 중 대중 수출량이 많은 기호식품, 농산가공품의 CAC지수값은 높지 않은 편으로 해당 품목의 대중국 수출경쟁력 제고가 요구된다. 산식물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출경쟁력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충남 축산물 중 대중 수출량이 많은 축산가공품의 경우 2005년 이후 CAC지수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모류의 경우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남 수산물 중 대중 수출량이 많은 수산가공품의 CAC지수값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나 해조류의 CAC지수값은 높지 않게 나타났다. 즉, 수산가공품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은 높은 편으로, 해조류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은 아직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조류의 경우 2005년 이후 CAC지수값 증가세가 확연하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 분석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대중국 수출량이 많은 편이나

수출경쟁력이 높지 않은 기호식품, 농산가공품, 해조류 등의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프리미엄, 온라인, 실용성이라는 키워드로 함축되는 최근 중국 소비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기존과 차별화된 인삼, 김, 기타 각종 농수산품의 대중국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수산 및 축산가공품의 경우, 현재의 수출증가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중국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공공은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보다 폭넓은 지역과 연령대를 공략할 수 있는 수출전략을 마련하여야 하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식품관련 온라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사드보복 종료로 인한 비관세 장벽 문제 완화, 중국 국내 소비시장의 확대 등 호재가 예상되는 바, 충남 유망 농, 축, 수산 식품의 대중국 수출경쟁력 강화 및 적극적인 중국시장 진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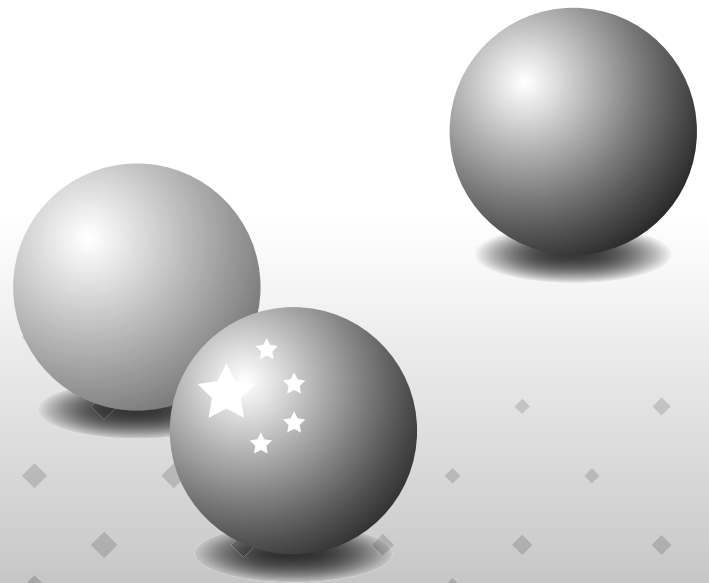
김양중 외(2015),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대중국 수출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충남연구원.
김양중(2010), 중국시장에 대한 충남의 수출경쟁력 분석, 충남발전연구원.
kotra(2018), 2017년 대중수출 평가와 2018년 전망, kotra.
모수원(2017), 불변시장점유율분석, 변이할당분석, 국별비교우위지수, 국별비교열위지수를 이용한 광양항의 수출경쟁력 분석,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33집 제3호.
문병기·이도형(2018), 수출 강소기업의 성장전략 및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trade focus, 2018년 1호.
양평섭·박민숙(2016),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제16권 20호.

중국 지역별 정책동향

- ▶ 1. 랴오닝성, 중의약(中醫藥) 건강양로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 2. 텐진시, 항공해안 대통관기지(航空口岸大通關基地) 건설 착공
- ▶ 3. 허베이성, 현대화 농업단지 건설 추진
- ▶ 4. 상해시, 중소기업 서비스 클라우드 사업 추진
- ▶ 5. 중국 지방정부 국제 교류 동향

전춘복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연구원



랴오닝성, 중의약(中醫藥) 건강양로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2018년 3월 랴오닝성 정부는 《중의약 건강양로서비스 시행 및 시범기관 지정 사업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였다. 《통지》에 따르면, 중의약 건강양로서비스사업 시행 초기에는 총 10개 기관을 선정·운영하고 2020년까지 이를 30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림 1> 중의약 의료서비스

자료 : 랴오닝일보

- 랴오닝성 위생계획출산위원회(衛生計生委)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서비스영역을 넓히거나 보건의료분야에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중의약 건강양로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중의약 분야와 양로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체질개선, 질병치료 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통지》는 위생계획출산위원회(衛生計生委)와 랴오닝성 민정청(省民政廳)이 공동으로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예비 의료기관 리스트를 평가한 후 시범운영기관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의의료기관은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 첫째, 중의의료기관은 치미병과(治未病科 : 예방을 원칙으로 체질개선, 면역력 증강 등을 도모하는 병과), 노년병과, 재활과를 개설할 예정이다.
 - 둘째, 중의의료기관은 노인의료서비스의 전달 및 수급방면에서 녹색통로(綠色通道 : 편리성, 안정성, 신속성을 갖춘 서비스 통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 셋째, 중의의료기관과 양로기관이 상호 협력관계를 맺고 의료 전문인이 양로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거나 양로기관에 노년병과를 직접 개설하도록 할 예정이다.
- 넷째, 중의의료기관은 지역사회위생서비스센터(社區衛生服務中心)와 향진보건소(鄉鎮衛生院)가 중의약 건강양로서비스 사업의 선두가 되도록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그 밖에, 《통지》에서는 중의약 건강양로서비스 시범기관의 종류와 표준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 2급 이상 중의의원(中醫醫院)이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년병과, 노년병동, 중의 치미병과(治未病科), 재활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야하고, 매년 의원의 의료 서비스 제공량이 증가하여야 하며,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지역사회위생서비스중심과 향진보건소는 관할구역 내 노인들을 위해 체질 판별, 보건서비스 실시, 질병 진료, 재활치료 등 10가지 이상의 중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양로기관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10가지 이상의 중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위생계획출산위원회(衛生計生委)와 민정(民政) 주관부서는 ‘랴오닝성 중의약 건강양로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2

텐진시, 항공해안 대통관기지(航空口岸大通關基地) 건설 착공

- 2018년 4월 6일,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텐진시 항공해안 대통관기지가 정식으로 착공에 들어갔다.
- 이번 사업은 《징진지(京津冀) 통합 발전전략》의 한 축으로, ‘1기지 3개 지역(壹基地三區) 사업’ 가속화를 위한 중점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항공과 해안부문에서 텐진시의

물류 경쟁력이 한층 제고될 것이고, 징진지 지역 내에서 텐진공항의 중추적인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텐진시 항공해안 대통관기지 설계도 및 해안 전경

자료 : 텐진자오상왕

- 본 사업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은 2020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으로 텐진항 보세구(天津港保稅區), T&B홀딩스(天保控股), 항공물류발전공사(航空物流發展公司)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2단계 사업은 아직 구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항공해안 대통관기지는 텐진시 항공물류단지 내에 건설하며 대지면적은 106.16ha이고 건축면적은 50.4ha이다. 해당 기지는 해안작업 구역과 생산사무보조시설 구역으로 구성되고, 해안작업 구역에는 물류 기초설비를, 생산사무보조시설 구역에는 생산사무 보조설비, 공공 부대시설, 에너지 보장시설, 정보화 서비스 플랫폼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 1단계 사업에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산업원(跨境電子商務產業園)과 검사서비스센터(聯檢服務中心)를 건설할 예정이다. 총 건축면적은 21.35만 m^2 이며 20.21억 위안을 투자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 1단계 사업을 통해 해안서비스, 화물운송 서비스, 경제통상 서비스를 통합하고 수상운송, 육상운송, 무역 등 영역에서 기업에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한다.
- 항공해안 대통관기지 사업을 통해 친환경·첨단·토탈 서비스형 물류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친환경과 첨단’을 사업의 기본이념으로 하여 설계, 건설, 운영관리 전반 과정을 구현하고자 하며, 설계와 시공단계에서는 녹색건축 기준을 따르고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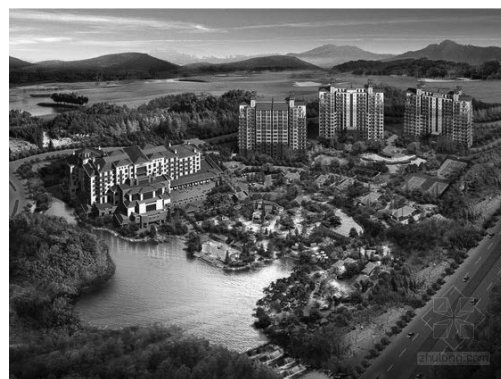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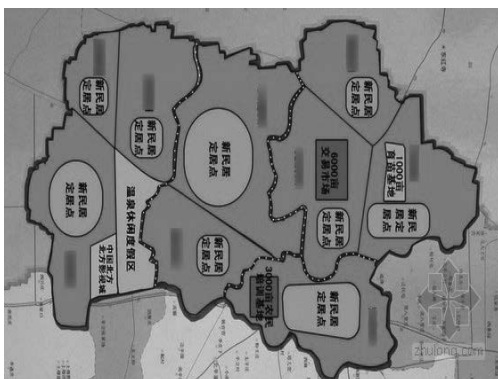
우선시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과정에서는 BIM(건축데이터모형)과 정보화 플랫폼을 기초로 하는 관리모형을 충분히 활용하여 사업절차, 시공품질, 안전 등 요소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3

허베이성, 현대화 농업단지 건설 추진

● 2018년 5월 23일 허베이성 농업청(農業廳)은 중앙정부의 농촌 부흥전략에 맞춰 《현대 농업단지 건설》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 지난 몇 년간 농업단지 건설을 통해 경제, 사회, 생태측면에서 나쁜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농업단지마다 특화된 부분이 미미하고 경영방식이 낙후하며 자금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 이러한 요소들은 허베이성 ‘현대화 농업단지 건설’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허베이성 농촌을 효율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해 농업청은 《현대 농업단지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그림 3> 농업단지 설계도(예시) 및 전경

자료 : 바이두 사진

- 농업단지별 상황에 맞는 경영관리 모델을 개별적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 ‘대기업(龍頭企業)+합작사+농가’, ‘대기업+합작사+개인농장+농가’, ‘합작사+농가’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모델을 적용하여 궁극적으로 농업단지, 기업, 농가가 동반성장하는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 개발과 육성을 통해 농업단지 발전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역 내 신선 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우수 제품을 개발하거나, 허베이성 인근 지역에서 일정한 인지도가 형성된 농산품을 선별하여 농업단지의 특화 상품으로 육성한다.
 - 둘째, 농업단지의 실제 상황에 맞게 외부기술이나 자원을 끌어들이 특화 상품을 개발한 후 명품브랜드 마케팅을 실시하여 농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한다.
 - 셋째, 농산품이 기업, 학교, 공공기관, 음식점, 온라인 시장 등에 진입하기 위한 활동과 언론 홍보, 전시회 등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정보화기술 활용과 새로운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 현대 농업단지는 농업과학기술의 시범사업 기지로서 대학 및 연구기관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험, 시범장소(試驗, 示範場), 성과 전환기지로 자리 잡아야 함을 강조했다.
 - 이를 대학과 연구소 등 산학연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농업과학기술연맹을 구축하고 농업단지에 대한 기술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정부는 다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허베이성 정부는 농업단지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전환, 건설계획 수립, 주력산업 육성, 인재교육, 투자유입 등 전 분야를 합리적으로 관리감독 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 농업, 수리(水利), 과학기술분야에서 농업과 연계한 예산을 마련하여 농업분야에 과학기술 자금이 유입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IT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시장흐름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특화산업을 양성하여 농업단지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 빅데이터,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등 IT기술을 활용하여 시장의 흐름을 읽고 수요를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수요와 조달 편차를 줄일 계획이다.
- 또한 성정부의 재정지원 외에도 국가와 민간을 통한 자금 확보로 자금 유입경로를 넓힐 예정이다.
 - 은행과 기업 간 연결을 추진하고 정부가 주축이 되어 투자담보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농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기타 사회적 자본

이 농업단지로 유입되는 것을 촉진할 예정이다. 기업의 직접투자 역시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4

상해시, 중소기업 서비스 클라우드 사업 추진

- 2018년 5월 18일, 상해시 경제·정보화위원회의 주최 하에 ‘New Power 정보화 신동력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서비스 클라우드 활동(企业服务云主题活动)》(이하 《활동》)이 개최되었다. 이번 활동에서는 《중소기업 클라우드 사업》(이하 《사업》) 가동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서비스 클라우드-상해 이동통신 플래그 숍(上海移動旗艦店) 개업소식을 알렸다.
- 상해시 경제·정보화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전산화를 위해 올해 1월 1일 중소기업 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 운영을 시작하였다.
- 클라우드 서비스는 일반 소비자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소비되는 제품 및 서비스와 솔루션을 말하는데 기업형 클라우드는 인터넷 환경을 이용하여 CRM, HR, 물류관리, 기업내부 정보관리와 기업간 공급망(B2B)을 개척 및 관리하는 전산업무시스템이다. 기업은 클라우스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보안과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대외적으로는 사업기회가 확대된다.



<그림 4> 중소기업 서비스 클라우드 활동일 사진

자료 : 인민망

- 《사업》은 ‘1개 중심(1個中心)’과 ‘3개 지점(3個支點)’을 통해 기업의 클라우드 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1개 중심’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3개 지점’은 클라우드 연결, 클라우드 응용, 클라우드 생태를 의미한다.
 - 《사업》은 2020년 말까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기업을 10만개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번 《활동》에서 중소기업 서비스 클라우드 - 상해 이동통신 플래그 숍(上海移動旗艦店)이 정식 개업했으며 ‘데이터 마트(數字超市: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 공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기업은 플래그 숍과 데이터마트를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 클라우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경우 진정으로 클라우드 제품의 전자상거래화(网购化)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5

중국 지방정부 국제 교류 동향

(1) 허베이성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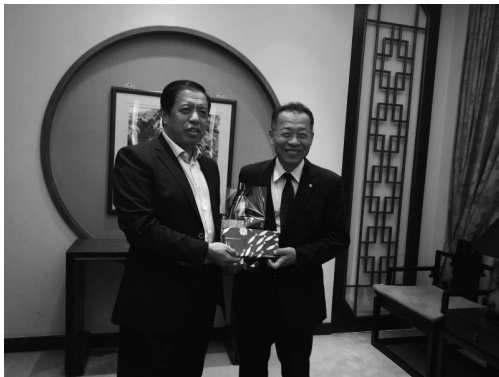
- 한국 강원도 대표단의 스자좡시(石家莊, 1997년 충남 천안시와 자매결연 체결) 방문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정만호 경제부지사가 허베이성 스자좡시를 방문해 동계올림픽 개최, 경제통상, 관광, 문화, 교육 등 분야 교류와 관련하여 회담을 개최했다. 정만호 경제부지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동계올림픽을 매개로 한 허베이성 연수단 초청과 중국 유커를 겨냥한 관광 상품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림 5> 강원도 대표단 허베이성 스자좡시 방문 사진

자료 : 허베이성 인민정부외사판공실

- **일본 미야즈시 시장일행 친황다오시(秦皇島, 1997년 충남 서산시와 우호관계 체결) 방문**
지난 5월 24-25일 양일간 미야즈시의 이노우에(井上正嗣) 시장일행이 친황다오시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두 도시 간 친선교류 추진 및 해삼(海參)판매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이노우에 시장일행은 현지 기업 지홍집단(冀紅集團)을 방문하여 해삼판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림 6> 미야즈시 대표단 친황다오시 및 지홍집단 방문 사진

자료 : 허베이성 인민정부 외사판공실

(2) 산둥성 동향

- 2018년 4월 24일 산둥성 인민대외우호협회(對外友協)가 오는 7월 독일 트리어에서 《공자&천년한자(孔子&千年漢字)》를 주제로 작품 전시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중국을 만나다(遇見中國)’ 문화전의 연속선상의 행사로,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독일 라인란

트 팔츠 문화유산보호와 연구총국(文化遺産保護與研究總局), 독중 우호협회연합회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그림 7> ‘중국을 만나다(遇見中國)’ 문화전 홍보 포스터

자료 : 산둥성 인민대외우호협회

- 《공자&천년한자》를 주제로 하는 이번 전시회는 산둥성 인민대외우호협회와 중국공자기금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주로 공자와 6예(六藝:예(禮)·악(樂)·사(射:활쏘기)·어(御:마차술)·서(書:서예)·수(數:수학)), 마애한자석각(摩崖漢字石刻)을 중심으로 전시하며 이를 통해 국내외 관중에게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중화민족의 상징성을 전파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遼寧省人民政府, 今年遼寧將試點中醫藥養老服務 http://www.ln.gov.cn/zfxx/jrln/wzxx/2018/201803/t20180328_3202786.html (검색일 : 2018년 5월 14일)
 天津市人民政府, 天津航空口岸大通關基地全面開工建設 http://www.tj.gov.cn/xw/qx1/201804/t20180417_3624336.html (검색일 : 2018년 5월 21일)
 河北省農業廳, 以有效举措推进现代农业园区建设 <http://www.heagri.gov.cn/article/ghjh/201805/20180500010531.shtml> (검색일 : 2018년 6월 5일)
 人民網(上海), 建數字超市、促能級提升、助力企業上雲 上海企業服務雲是朵“神奇”的雲 <http://sh.people.com.cn/n2/2018/0518/c134768-31598672.html> (검색일 : 2018년 5월 28일)
 河北省人民政府外事辦公室, 韩国江原道代表团访问石家庄市/日本宫津市市长井上正嗣访问秦皇岛市 http://www.hebwb.gov.cn/syscolumn/xwzx/wqyw/index_1.html (검색일 : 2018. 06. 01)
 山東省人民對外友好協會, 馬克思故鄉中國文化展將舉辦 山東推出《孔子&千年漢字》主題展 http://yx.sdfao.gov.cn/art/2018/4/24/art_7710_852091.html (검색일 : 2018. 06. 05)



12.

마오쩌둥과 린바오의 연합

박인성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 1959년 루산회의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이 평더화이(彭德懷)를 숙청한 이유를 대약진을 직설적으로 비판한 평의 편지내용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고만 한다면, 전략가이자 정치가인 마오쩌둥을 너무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 1959년 루산회의 이전부터 평더화이에 대한 마오쩌둥의 경계심은 이미 수년간 누적되고 무르익어 왔다. 마오쩌둥은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에서 개선장군으로 귀국 이후, 승승장구하며 국방부장과 국무원 부총리를 겸임하면서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평더화이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견제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 또한, 중공 중앙 주석과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갖고 군대에 대한 통제를 중요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 있던 마오는 평이 주장하는 "군대의 전문화"가 자신의 군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킬 것이라 생각했다.
 - 단, 평더화이는 루산에서 직설적이고 진솔한 의견을 담은 문제의 편지를 마오쩌둥에게 전달한 그 순간까지도 자신에 대한 마오의 경계심을 몰랐거나 크게 개의치 않았다.
- 마오쩌둥은 한편으로는 평더화이의 당내 영향력 확대와 서열상 부상을 경계,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군부 내에서 평더화이와 경쟁관계에 있던 린바오를 부추기며 키우기 시작했다. 이러한 마오의 의도는 1959년 루산회의보다 1년여 전에 개최된 1958년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부터 읽을 수 있다.
 - 1958년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개최된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마오는 린바오의 건의를 받아 들여 원래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던 교조주의(教條主義) 비판을 회의 주제로 채택하도록 지시했다.
 - 교조주의는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개최를 앞두고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고 온 린바오의 거소에 찾아온 한 군부 내 인사가 군부 내 소련 따라하기 풍조에 대한 실상을 전하는 말을 듣고 이를 마오쩌둥에게 보고하면서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주제로 부상했다.
- 이후 군권의 주도권을 평더화이로부터 린바오에게 넘기려는 마오쩌둥의 의도가 점차 구체화되고, 이를 간파한 린바오는 이듬해(1959년) 여름 루산회의와 1962년 소위 "7000인 대회(七千人大會)"에서 누구보다 확실하게 마오쩌둥 편에서 마오의 의도를 실천하는 선봉장 역할을 했다.
 - 7000인대회는 1962년 1월11일부터 2월 7일까지 중공중앙이 베이징에서 개최한 확대공작회의를 부르는 별칭이다. 이 회의에는 중공 중앙, 중앙국(中央局), 성(省), 지구(地), 현(縣: 주요 공장과 광산 포함) 5급 영도간부 등, 모두 7,118명이 참석했다. 이는 중공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회로 "대약진 운동"의 경험과 문제를 총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 7000인대회의 규모가 이처럼 커진 것은, 그 전해인 1961년 각 중앙국(中央局) 서기회의에서 당시 중남국(中央局)¹⁾ 제1서기 타오주(陶鑄)가 한 건의에서 시작되었다.

- “7000인대회” 직전인 1961년 11월 10일, 중공중앙은 각 중앙국 제1서기가 참석한 회의에서 양식 수매와 상급 단위 조정문제를 구체화 했다. 회의에서 각 중앙국 서기들은 마음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들은 양난(兩難) 지경에 처해 있었다. 중앙에서 임무를 떠맡고 돌아가서 도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들은 그들 관할지구 농촌농민의 입장에 있었으므로 중앙이 요구하는 식량 수매량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남국 제1서기 타오주(陶鑄)가 전국의 지구급 위원회(地委)까지 서기(書記)들을 베이징에 불러 모아 놓고, 그들에게 지방의 현지 사정도 듣고, 중앙의 어려움도 전달하는 사상교류를 하자고 제안했다.
- 타오주의 제안을 들은 덩샤오핑(鄧小平)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오면 먹는 문제는 어떻게 하나?”고 물었고, 타오주가 즉석에서 말하기를, 각 단위와 소조별로 자신이 먹을 돼지고기와 채소(青菜)를 갖고 오게 하면 된다고 했다.
- 11월 12일 저녁에 덩샤오핑이 타오주의 건의 내용을 마오쩌둥에게 보고했고, 마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중앙이 대약진운동 이래의 업무를 총결해 볼 필요도 있으니 회의를 개최할 거면 크게 현위원회(縣委) 서기 이상, 즉 5급 간부 이상이 모두 참가하는 게 좋겠다. 회의에서는 대약진의 경험을 총결하되 좋은 경험, 나쁜 경험을 모두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마오는 또한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최근 수년간 각 성(省)은 오직 자신의 문제만 지적했고, 중앙의 문제는 지적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실에 부합할 수 없다. 이 대회를 이용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수년간 중앙이 업무 중에 어떤 과오를 저질렀는지 그들이 말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그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 과오의 책임은 첫째가 중앙이고, 둘째가 성(省)이다. 중앙은 우선 바꾸고, 그 다음에는 검토해야 한다. 지방은 바꾸기만 하고, 검토는 안 해도 된다. 회의는 10일간 연다. 큰 회의와 작은 회의를 연계시켜 개최한다. 나도 대회에서 발언할 준비를 하겠다. 중앙의 각 동지들도 한마디씩 하라. 회의를 기풍을 바로 잡는 작은 정풍(整風)이 되게 하고, 모두의 사상을 통일시키자.”
- 이리하여, 1962년 초에 중공중앙이 중국 전국의 현위원회(縣委) 서기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 즉, “7000인 대회” 개최가 결정되었다.

● 1962년 1월11일부터 2월 7일까지 중공중앙이 베이징에서 개최한 확대공작회의, 별칭 “7000

1) 1960년 12월에 광저우에 중공중앙 중남국(中央局)이 복구 건립되었고, 타오주(陶鑄)가 제1서기와 광동성위원회 제1서기도 겸임했다. 1962년 자오쯔양(趙紫陽)이 광동성위원회 제1서기에 취임한 후 타오주는 중남국의 업무를 전담했고, 광저우 군구(廣州軍區) 제1 정치위원(第壹政委)을 겸임했다. 그 이전에, 원래 중공중앙 직속기구인 중남국(中央局)은 동남국(東南局)과 중원국(中原局)으로 합병되었고, 화중국(華中局)과 화중군 분회(華中軍分會)를 동시에 건립했었다.

인 대회”는, 민주적 분위기에서 비평과 자아비평을 했고, 1958년 국가주석이 된 류샤오치(劉少奇)가 대약진 이후 중앙과 지방의 당의 공작업무상의 교훈을 총결하고, 공작업무 중에 발생한 “좌경 착오”를 재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교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즉, 1958년 이래, “대약진” 운동과 농촌인민공사화 운동의 실패가 “7000인 대회” 개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 마오쩌둥이 발동한 “대약진”의 원래 의도는 중국의 공업화를 조속히 실현하고, 중국을 위대하고, 강성·번영·고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변화시키고, 자신의 이상인 낡고 고루한 중화민족을 세계민족의 숲속에 스스로 세우고, 빈곤하고 고난 속에 있는 중국인을 평등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 1958년 8월, 후르시초프와 만난 자리에서 마오쩌둥이 말하기를, “1949년 중국 해방은 매우 기쁜 일이다. 단, 중국문제는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중국은 매우 낙후하고, 가난하고, 모든 게 비어있다. 상공업의 개조와 미국과의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에서 승리했으나 모두 유쾌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 나는 오직 대약진에 대해서만 완전히 유쾌하다. 이 같은 속도로 발전해 간다면, 중국 인민의 행복한 생활은 실현 가능하다!”



<사진 1> 후루시초프와 마오쩌둥 회담(1958. 8)

- 마오쩌둥은 늘 각 건설사업 프로젝트를 좀 더 빨리 진행하고 싶어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중국의 낙후한 경제, 물질기초가 박약한 피동적 국면을 돌려 세우고 싶어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중국경제가 7년 연속 고속성장한 상황에 도취되어서 냉정을 잃고, 경솔하게 대약진 운동과 인민공사화 운동을 발동했다.

- 마오쩌둥은 이토록 많은 인구와 원시적이고 낙후한 농업대국이 전국의 인민을 발동하여 낮과 밤 구분 없이 혹독하게 일하면, 수년 또는 십 수 년의 시간 후에 빈곤하고 낙후한 모자를 벗어 던지고, 주요 공업생산품 생산량에서 영국을 추월하고 미국을 따라 잡을 수 있다고 했다.
 - 오늘 중국 인민들과 우리는 그 시도는 실패했고, 그러한 목표의 달성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당시에 마오는 일이란 사람이 해내는 것이므로, 중국인민의 열정으로 짧은 시간 내에 전국의 경제와 문화 건설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번영, 부강한 중국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다.
- 이리하여, 마오쩌둥이 발동하고, 중국 전국의 인민이 적극 호응한 “대약진”운동이 추진되었으나, 객관적 조건과 자연규율, 경제규율을 위반하고, 열정에만 의지하면서, 의욕에 넘쳐 “약진(躍進)” 지표를 과다하게 높게 설정하고, 허풍과장 풍조 속에 밀어붙인 결과, 일순간에 전국 도처에 1무(畝) 당 식량생산량 1천근, 1만근의 기적(?)을 달성한 현(縣)들이 연이어 출현했다.
 - 이와 함께 강(鋼), 철(鐵), 석탄 등 중요 공공업 상품의 생산량도 부단히 두 배 이상씩 증가했다는 보고가 연이어 올라오자 마오쩌둥을 비롯한 중공 간부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에 근거하여, 마오쩌둥과 중공중앙은 영국을 추월하고 미국을 따라 잡는다는 목표 달성까지의 시간을 부단히 단축시켰다. 영국을 추월하는 시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했고, 다시 10년에서 7년으로, 또 다시 7년에서 5년, 또 다시 2-3년으로 단축했다.
- “대약진”과 함께 농촌인민공사화운동을 추진한 지 불과 수개월, 중국 전국 수억 농민은 소유한 토지, 가축, 농기구들을 모두 공공(公共)에 내 놓아야 했다. 심지어 지방에 따라서는 농민의 주택, 낫쇠술 및 생활용품도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過渡)기간” 중의 공(公)이 되었다.
 - 경제발전 규율을 심각하게 위배한 이러한 운동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다. 불과 1-2년도 안 되어서 전국적인 대기근(大饑荒)이 나타났다. 도대체 그 많다던 양식이 모두 어디로 가버렸단 말인가? 그제야 식량증산 같은 건 애당초 없었을 수도 있었다는 걸 깨닫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 사실은, 농촌에서 붉은 완장을 찬 일지기 건달들이 급진적으로 인민공사화를 추진한다는 중앙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라면서, “첫째 공평, 둘째 조정(壹平二調), “큰 공장, 통 큰 운영” 등의 구호를 외치고, 경작제도와 경작기술 등을 개정하며 난리를 치는 동안에, 양식과 면화와 식용유의 생산은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폭 감소했다.
 - 공업생산에서도, 판을 과도하게 크게 벌리고, 난잡하게 항목을 정했고, 또한 과도하게 강철 생산 강령을 강조했으나, 오히려 종합균형(綜合平衡)이 파괴되었고, 기타 상품의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 또한, 적지 않은 규장(規章)과 제도를 폐지한 결과로, 기업관리분야에 혼란을 조성했고, 경공업과 중공업 모두 심각하게 훼손되어 생산량이 수직적으로 하강했다.



<사진 2> 대약진 당시 선전 구호

- 중국공산당은 1935년 준의회의(遵義會議)²⁾ 이래, 처음으로 거대한 좌절에 직면했다. 그토록 불철주야 동원하고, 간난신고(艱辛) 노력했음에도, 농업 수확과 공업 생산량이 받아들이기조차 곤란할 정도로 감소한 이 같은 국면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란 말인가?
 - 적지 않은 이들이 마음속에 멍이 들고, 당혹하고 불안해했다. 어떻게 이 궁지에서 빠져 나갈 것인가, 사회주의 건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승리감과 자신감에 도취되어 있던 마오쩌둥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 사실, 마오쩌둥도 후르시초프와 대화를 나눈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약진”에 문제가 있다는 걸 감지하기 시작했고, 1959년 여름에 루산에서 중앙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한 주요 목적도 원래는 이 같은 “좌경 착오”를 신속히 교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 단, 이 시기의 마오쩌둥은 이때까지도 만일 좌경착오를 확실하게 교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져올 극심한 악영향과 후과가 어느 정도일지를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펑더화이(彭德懷) 등이 “대약진”에 대해 비교적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비판의견을 제출했을 때에, 역사적으로 누적된 감정 및 후르시초프의 배경 때문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다.

2) 준의회의(遵義會議)는 1935년 1월 15일-17일, 중공중앙정치국이 중국혁명문제를 독립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貴州 遵義에서 개최한 회의이다. 이 회의에서 중공중앙 홍군(紅軍)이 제 5차 국민당 토벌대와의 전투와 장정(長征)초기에 겪은 심각한 패배와 좌절을 겪은 상황 하에서, 소련이 파견한 보구(博古)의 좌경 영도(左傾領導)와 군사 지휘하의 착오를 지적하고, 마오쩌둥이 실질적인 중공중앙의 영도자 지위를 승인했다.

- 1960년 8월, 계획업무를 주관하던 리푸춘(李富春)이 “대약진”의 추세가 다시는 지속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고, “정돈(整頓), 공고(鞏固), 제고(提高)”라는 조정(糾偏)방침을 제출했고, 그 후 저우언라이(周恩來)에 의해 “조정(調整), 공고, 충실(充實), 제고”로 개정. 유명한 “8자 조정방침(八字糾偏方針)”이라 불렸다.
- 얼마 후, “신양(信陽)사건”이 폭로, 돌출되었다. 대약진 시기에 중국 전국 농촌지구에서 만연했던 기근이 가장 심했던 사례지구로 꼽히는 것이 허난성(河南省) 동남부 신양(信陽)지구이다.
 - 당시 중남국 제2서기였던 왕런중(王任重)이 말하기를, “내가 광산(光山: 신양지구의 현)에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집이 무너지고, 텅 비어 있고, 찢은 옷이 가난하고, 사람마다 상복을 입고 있었고, 집집마다 통곡소리가 났다. 이것은 사실이다. 무슨 ‘우경 기회주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게 아니다.”
 - 1998년 덩리쥔(鄧力群)이 회고하기를, “나의 친한 친구인 펑파장(彭大章: 당시 중난하이 비서실 책임자중 1인)이 신양(信陽)에서 조사 후 돌아와서 내게 말하기를,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고 말하는 데 그 표정이 너무 참담했다. 또 그 이후에 리셴넨(李先念) 동지도 다녀와서 말하기를, 그가 가본 촌마을에 부녀자들 모두가 상중에 신는 하얀 천을 댄 신발(白鞋)을 신고 있지 않은 이를 볼 수가 없었다.”
- 1958년 허난성 전체의 양식 생산량은 실제로는 281억 근이었으나, 우즈푸(吳芝圃)가 서기 겸 성장을 맡고 있던 허난성 위원회는 702억 근이라고 부풀려 보고하고, 이를 근거로 양식 징수 지표를 정하고 시행하면서, ‘반만산(反滿產) 운동’, 즉 생산량을 속이지 말자는 운동을 전개했다.
 - 기층 농촌의 간부들은 목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양식을 바치지 않는 농민들을 공권력과 무력을 사용해 묶고, 매달고, 때리고, 가두고, 밤잠을 안 재우고 벌세우고, 집을 헐어 부수고, 거리로 끌고 다니면서 조리 돌리는 등 온갖 잔인한 행태들을 “반혁명 투쟁” 또는 “반우파 투쟁”의 이름으로 진행했다.
 -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의욕과 적극성은 급속하게 저하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에 가뭄, 메뚜기 때 등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농업생산량이 극심하게 줄었다.
- 1958년 11월에 허난성 밀현(密縣)에서 굶어죽은 농민 사례가 최초로 보고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부종병에 걸린 자와 굶주리다 죽는 자의 수가 갈수록 증가했다.
 - 후에 중공중앙에서 파견한 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에 의하면 수많은 촌락에 사람의 흔적이 없어졌고, 광산현 한 현에서만 2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심지어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은 참상도 있었다.
 - 신양지구의 이 같은 참상은 비교적 일찍 폭로되었을 뿐이고, 당시 식량 부족과 아사자의

발생은 중국 전국에서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1958~1962년 대약진운동 기간 중 중국 전국에서 소위 “비정상 사망자” 숫자가 약 3000만 명에 달했다.

- 마오쩌둥은 신양의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듣고, 바로 그날 즉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에게 매우 화급한 방식으로 중앙이 농촌정책을 정하는 문제에 대한 지시를 제정할 것을 지시했다.
 - 주요 내용은 문화혁명 10년 대동란이 끝나고 마오가 죽은 후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기 초기의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다. “첫째 공평, 둘째 조정(壹平二調)”에 반대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按勞分配) 원칙을 실시하고, 농민의 소규모 자류지(自留地) 보유, 소규모 가정부업, 그리고 지도와 계획이 있는 농촌집체시장 허용, 그리고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개인에게 위임하여 농민이 작은 경영권과 자주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 1961년 8, 9월에 이르러, 원재료와 연료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중국 전국 공업생산량이 떨어지는 추세가 나타났고, 강철생산량이 1400만 톤이 떨어지자, 중공중앙은 비로소 이시기를 놓치면 조정조치 어려워 질 것이란 것을 감지했다.
 - 1961년 말에는, 도시의 상황도 매우 심각해졌다. 경공업은 1960년부터, 중공업은 1961년부터 급속하게 하락했고, 1961년 공업총생산액이 전년대비 40% 이상 줄었다. 인민의 일상생활용품 부족도 심각했다. 상점의 진열대는 기본적으로 모두 비어 있었다.
- 이 같은 곤란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상술한 각 항 지표들을 조정하는 동시에, 중공중앙은 농업과 공업 방면에서 각각 일련의 조정정책을 시행했다.
 - 농업방면에서는, "농업 60조"를 제정 발표하고, 인민공사(公社)를 결산(覈算)단위로 하던 것을 생산대대로 바꾸고, 인민공사와 생산대대의 규모를 소규모로 조정하고, 인민공사는 향(鄉)을 단위로 하고, 생산대대(大隊)는 자연촌(自然村)을 단위로 하게 했다. 또 1961년 5월에는 중앙공작회의가 공공식당을 해산한다고 선포하고, 평균주의 경향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제를 기본적으로 폐지했다. 1961년 9월에는 다시 분배권을 생산대대(大隊)에서 생산소대(小隊)로 이양하고, 생산소대를 기본 결산단위로 했다. 이후 농민의 생산 적극성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 공업방면에서는, "공업 70조"를 제정 발표하고, 기업경영을 점진적으로 규범화하고, 순환 가능한 운행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수공업, 상업, 교육, 과학기술 등 적지 않은 업종을 조정했다. 한편, 양식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인구 1000만 명을 줄였다.
- 또한, 중공중앙은 이토록 급속하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당의 각급 간부가 당혹, 실망, 고민하는 정서에 빠져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2개년계획과 또 하나의 7개년계획을 제정할 것을 결정

했다.

- 왜 5개년 또는 10개년 계획이 아니고 2개년 혹은 7개년 계획이었는가? 원래 중공중앙은 건국 20주년이 되는 1969년에 인민의 먹고, 입고,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1962년까지 제2차 5개년계획을 끝낸 후에, 1963년부터 1969년까지 7개년 계획을 제정하기로 했었다.

- 1961년 10월, 소련공산당 중앙이 모스크바에서 제22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했고, 중공은 저우언라이가 인솔하는 대표단을 파견, 참가했다. 이때 후르시초프가 중국의 대약진 정책을 비판하면서 마오쩌둥의 지위를 동요시키는 발언을 했다.

- 이 같은 후르시초프의 행동에 마오쩌둥은 극도로 분노를 표출했고, 중소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 도시인구를 1000만인 이상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보유한 양식은 도시의 최저수요를 만족시키기에도 어려웠다. 게다가 외환보유도 부족해서 국제시장에서 양식을 살 여력도 없었다.

- 1961년에 중국 내 주요 도시들에서 이미 수 건의 청원사건(請願事件)이 발생했다. 만일 도시에 양식이 떨어져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다면, 그 혼란은 농촌과는 비교도 안 될 것이고, 그 결과가 심각할 것이라는 건 더 말할 필요조차 없었다.

- 1962년 "7000인 대회" 개막 후, 1월 27일에 류샤오치(劉少奇)가 장장 3시간에 걸친 '대회보고'를 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면 형세가 매우 곤란하다. 현재의 국내 형세를 실사구시(實事求是)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경제방면에서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현재의 곤란은 인민들이 먹을 양식이 부족하다. 부식품과 육류, 기름 등이 부족하고, 옷감도 너무 적고, 일상생활용 소비품도 많지 않다. 즉, 인민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일상생활용 소비품이 모두 부족하다. 왜 부족한가? 이는 1959년, 1960년, 1961년 3년간 우리의 농업은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소했다. 그 감소량이 적지 않다. 오히려 상당히 크다. 공업생산량도 1961년에 줄었다. 통계에 의하면 40% 또는 그 이상 줄었다. 올해(1962) 공업생산도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2-3년 전에 우리는 농업과 공업 방면에서 최근 수년간 크게 약진한 줄 알고 있었고, 사실 일정 기간 중에는 큰 폭으로 약진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매우 큰 폭으로 후퇴했고, 일종의 큰 말 안장(u자형) 추세가 출현했다.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나는 우선 실사구시(實事求是)적으로 사실이 이렇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둘째, 곤란이 조성된 주요 원인이 천재(天災)냐, 아니면 인재(人災)냐? 라는 것이다. “어떤 지방에서는 생산량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천재가 아니었고, 업무추진 중의 결점과 착오 때

문인 곳도 있다. 작년에 후난성(湖南省)의 한 지방에 갔을 때 그곳에도 매우 큰 곤란이 발생한 걸 알았다. 그래서 내가 농민에게 물었다. “이러한 곤란의 원인이 무엇인가, 천재가 있었는가?” 농민들이 대답하기를 “천재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셋이라면 일곱은 인간 때문이다.”라고 했다.

- 셋째, 이 3년간의 성과와 착오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과거에 우리는 결점이나 착오를 성과와 견주면서, “한 손가락과 아홉 개 손가락”의 관계로 비유했다. 현재는 아마도 모든 곳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즉, 전국에 대해 총체적으로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마도 “세 개 손가락과 일곱 개 손가락” 정도 될 것이다. 또한 어떤 지방은 결점과 착오가 손가락 셋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류샤오치의 이 같은 발언은 마오의 가장 예민하고 아픈 곳을 찌른 것이었고, 후에 마오가 문화대혁명 발동한 후, 류에게 잔인하게 복수한 주요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 넷째, 소위 “3면 홍기(三麵紅旂)” 즉 총 노선, 대약진, 인민공사에 대해서였다. 즉, “삼면홍기에 대해서 우리는 현재 모두 취소하지 않고, 모두 계속 견지하고 분투한다. 현재로선 이 러저러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다시 5년, 10년 지난 후에 경험을 다시 총결한다면 진실보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원래 류샤오치는 사회의에서 이미 “3면 홍기”는 상대적으로 거론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대회에서 말하지 않을 수도 없다.”라 말한 바 있었다.

● 회의 참석자 중에 류샤오치의 발언, 특히 아래와 같은 내용을 들으면서 마오쩌둥을 상기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 모종의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다.

- “총노선은 완전히 정확하다고 할지라도, 집행 중 편차가 있었다. 우선은 중앙의 책임이다. 소위 책임져야 할 중앙은 중앙 각 부문, 즉 국무원과 국무원 소속 각 부문이 포괄된다.”

● 류샤오치는 루산회의와 평더화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루산회의에서 평더화이가 한 말 중 많은 부분은 사실에 부합한다, 반우경투쟁은 과도했고 너무 확대되었다. 어째서 우파 모두에게 말하도록 하면서 평더화이에게는 말을 못하게 하는 건가?” 라는 말도 했다.
- 그러나 곧 이어서 “평더화이의 문제는 당내에 소집단과 군사구락부를 만들고, 소련과 연계된 활동을 한데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3> 7000인 대회 단상의 류샤오치, 천원, 덩샤오핑

● 1월 30일, 마오쩌둥의대회강화(講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는 자신의 과오를 숨기지 않겠다. 중앙이 저지른 모든 과오는 직접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고, 간접적으로도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 왜냐면 나는 국가주석으로 최근 수년간 수많은 어리석은 짓을 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비해 매우 많은 우월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인구가 많고, 기반이 얇아서, 생산력을 대폭 발전시키고, 세계상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따라잡거나 추월하려면 백년도 더 걸릴 것이라고 본다.
-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는 맹목적인 부분이 매우 컸다. 나는 경제건설 업무의 수많은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다. 1958년 8대 2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건설 촉진을 위한 총 노선을 통과시키고, 인민공사를 건립하고, 대약진의 구호를 제출했다.
- 우리는 아직까지도 적합하고 구체적인 방침, 정책, 방법을 규정하지 못했다. 경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 일련의 장애물을 만나고, 정반 양면의 경험을 축적한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 현재는 좋아진 편이다. 그것들을 갖게 되었거나 제정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더욱 순조롭게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진행할 수 있다.”

●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마오의 자아비판에 매우 감동했고, 이어서 덩샤오핑, 저우언라이, 천원, 주더의 발언이 이어졌다.

● 린바오(林彪)는 류샤오치의 발언을 들으면서, 결눈질로 마오쩌둥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가닥 생각을 곰곰이 새기고 있었다.

- 은밀하게 마오의 기색과 반응을 관찰하던 린바오는 마오가 류샤오치, 덩샤오핑 등의 발언 내용에 대해 불만스럽게 느끼는 기색을 명확하게 감지했다. 동시에 마오의 발언 중에 마오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진정한 그의 생각을 나름대로 간파했다. 즉, “1958년의 구상은 근본적으로 옳았다. 오직 일련의 구체적이고 적합한 정책과 방침이 부족했다. 이것은 경험 부족 때문이며 동시에 하층 간부들이 과장·허위 보고하고 중앙을 속였다.”
- 린바오는 바로 이 순간이 정치적으로 개입할 기회임을 명확히 깨달았다. 류샤오치 이후의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이 모두 비슷한 걸 확인한 후에, 린바오가 단상에 올라가 대회 발언을 시작했다.
 - “마오쩌둥 사상은 항상 정확하다. 경제곤란이 발생한 것은 마오쩌둥 사상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항들을 마오주석의 사상, 경고, 지시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 만일 모두 마오주석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곤란과 곡절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 린바오는 자신을 바라보는 마오의 눈길과 표정에서 자신의 말이 예상한 대로 효과를 일으키고 있음을 확신했다. 마오는 그가 정작 하고 싶었던 말, 그러나 말하기 쉽지 않았던 말을 린바오가 대신 해주고 있어서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마오의 눈길과 표정을 살피며 린바오가 계속 말을 이어 나갔다.
 - “과거에 공작이 잘 될 때는 바로 마오쩌둥 사상이 방해받지 않았던 때였다. 반대로, 마오주석의 사상이 존중받지 못하고 방해를 받았을 때는 늘 문제가 발생했다. 수십 년간의 우리 당의 역사가 바로 이 역사이다.”
- 린바오의 의도는 마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고, 이후 마오쩌둥과 린바오의 연합은 갈수록 공고해진다. 마오가 자신의 아내 지양칭(江青)을 포함한 4인방 등을 내세워 홍위병을 선동하면서 전국을 대동란의 혼란에 빠지게 하는 문화대혁명을 발동할 수 있었던 것도 린바오의 인민해방군 군부가 배후에서 지켜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알렉산더 판초프 외. 심규호 옮김(2017), 『마오쩌둥 평전』 민음사
 鬍哲峰, 於化民(2013), 『마오쩌둥與林彪』 新世界出版社
 현이섭(2012), 『중국지(하)』 인카운터
 마리-클레르 베르제르, 박상수 옮김(2009), 『중국현대사』 심산
 林蘊暉(2008), 『國史禮記-事件篇』 東方出版中心
 王夢初(2008), 『大躍進親歷記』 人民出版社
 張濤之(1998), 『中華人民共和國續義(中捲)』 作家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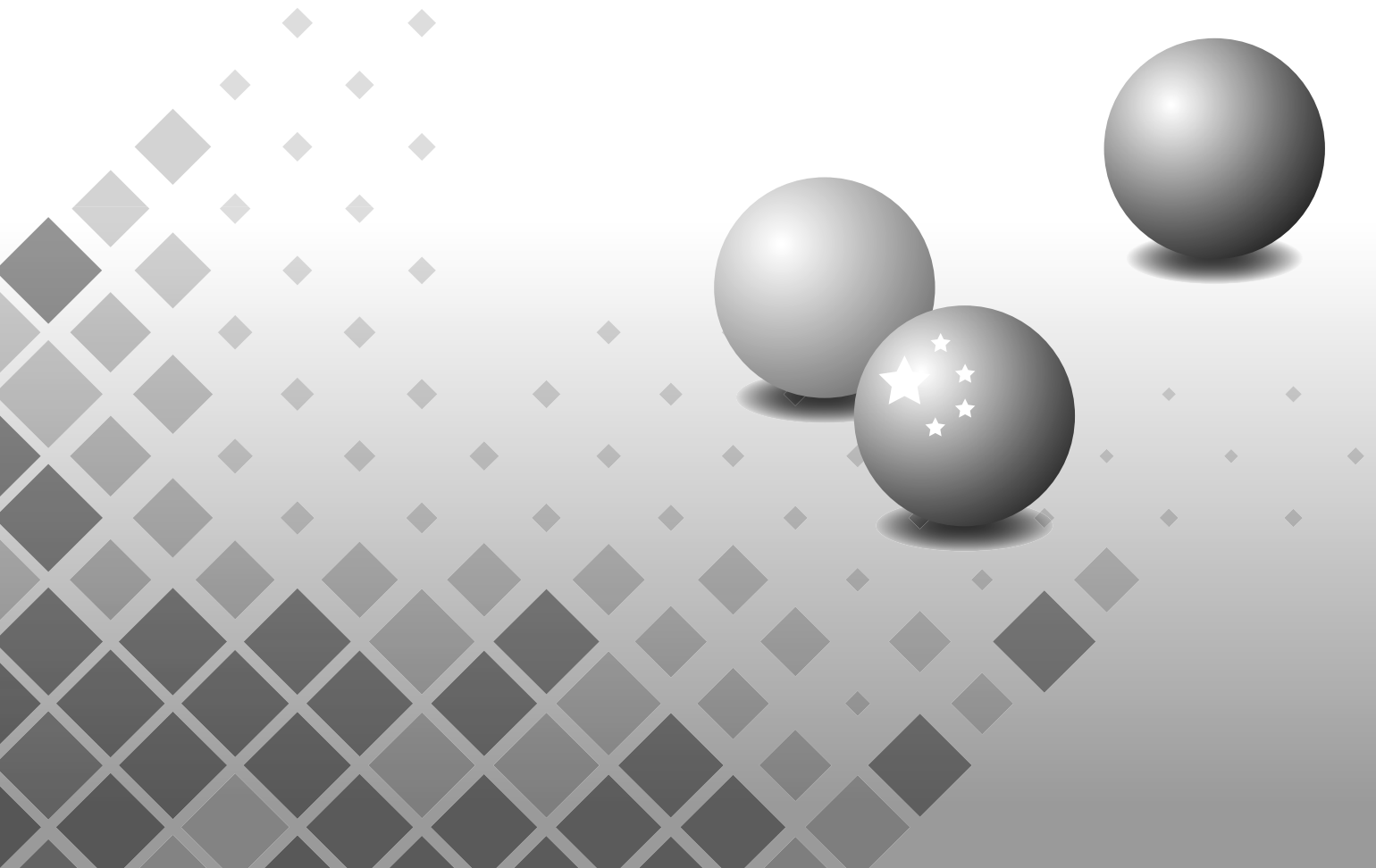


3.

부여 정림사지 5층석탑과 소정방, 그리고 백제의 한(恨)

박경철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장



● 중국 북위(北魏)의 영향을 받은 사비도성과 부여 정림사지(定林寺址)

부여 정림사지는 현재 부여읍 정림로 83에 위치하고 있다. 1983년 3월에 사적 제301호로 지정된 이 절은 백제 성왕이 538년 지금의 부여인 사비성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도성 안을 동서남북 등 5부로 구획하고 그 안에 왕궁과 관청, 사찰 등을 건립할 때 나성으로 에워싸인 사비도성의 중심지에 세워졌다. 정림사와 왕궁의 관계는 중국의 북위(北魏) 낙양성(洛陽城) 내의 황국과 영녕사(永寧寺)의 관계와 흡사하여 사비도성의 기본구조가 북위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다.¹⁾

본래 이 절은 성왕이 공주에서 부여로 도읍을 옮긴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창건한 것으로 추정하나 창건 당시의 절 이름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 알 수 없었다. 그러다가 고려시대 때 절의 재건 당시(현종 19년, 1028)에 제작된 기와 가운데 ‘대평8년무진정림사대장당초(大平八年戊辰定林寺大藏唐草)’라는 명문(銘文)이 있어 이 절의 이름을 정림사지(定林寺址)라고 부르게 되었다.²⁾



<그림 1> 부여정림사지 위치도

자료: 다음 지도

● 정림사지 출토 소조상(塑造像)을 통해 본 백제의 대중국 외교정책

부여 정림사지 한가운데에는 국보 제9호인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다. 기단은 여러 개의 석재를 정연하게 짜 맞추어 각 면에 귀기둥과 한 개의 사잇기둥을 두었다. 이 탑은 목탑을 석탑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부여정림사지」 참고
2) 한국고고학사전: 「정림사지」 참고

으로 재현하는 과정을 거쳐 완전한 석탑으로 창안된 성공작으로 미륵사지석탑에 비하여 석재의 짜맞춤이 간략하고 말쑥하게 정제되고 전체적으로도 균형 있는 비례를 적용시켜 한눈에 우아하고 날씬한 백제석탑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³⁾

목탑을 석탑으로 재현했다는 것은 본래 정림사지 5층 석탑의 터에 목탑이 있었는데 이 목탑이 소실되어 나중에 석탑으로 재현했다는 뜻이다. 이도현(1997)의 연구에 따르면, 정림사지에서 출토된 소조상들은 중국 북위의 영녕사(永寧寺)와 일본 나라현의 법륜사(法隆寺) 5층 목탑에서처럼 목탑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석탑보다는 잔존한 기단에 비례하는 목탑이 들어섰을 때에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가람을 상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미륵사지 출토 유물과 비교 검토한 결과 석탑 건립년도를 639-660년으로 추정하였다.

정림사지 5층 석탑 이전에 목탑이 있었고 그 목탑에는 많은 소조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백제는 당시 중국 북조와의 교류가 활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도현(1997)의 주장에 따르면, 백제 왕조 중에서 북조와 가장 적극적인 외교를 펼쳤던 왕은 위덕왕이라고 한다. 그는 한 때 관산성전투에서 패함으로써 궁지에 몰리기도 했지만 패사한 부왕과 죽은 왕자를 위해 능산리사지와 왕흥사를 창건할 정도로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였다. 이후 그는 북조와 외교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백제의 국가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한반도 내에서의 고립을 탈피하는 동시에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했다. 따라서 정림사 목탑 안에 북조계 소조상을 안치한 목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국가적 사찰이었던 정림사 목탑에 북조계 소조상을 안치함으로써 남조 일변도정책에서 벗어나 북조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했던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그림 2> 부여정림사지와 5층 석탑

자료: 부여군청 홈페이지(문화관광)

3) 한국사전연구사 한국불교미술대전: 「정림사지 5층 석탑」 참고

● 소정방, 정림사지 5층 석탑에 백제의 한을 남기다.

정림사지 5층 석탑은 국보 제9호로 지정될 만큼 백제 불교미술의 찬연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탑이지만 널리 알려졌는지 이 탑의 탑신에는 당나라 소정방(蘇定方)이 새겼다고 하는 ‘大唐平百濟國碑銘’이라는 제액이 있다. 나당연합군으로 백제를 침략한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하고 이를 기념으로 백제 왕궁의 대표적인 유적인 이 석탑에 당나라가 백제를 멸망시킨 내력을 새겨놓았다. 그래서 한 때는 평제탑(平濟塔)으로도 불리었던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당나라가 세운 전승기념탑으로 오해를 해서 치욕스런 이 탑을 허물자는 주장도 제기되곤 했다.



<그림 3> 정림사지 5층 석탑에 새겨진 ‘大唐平百濟國碑銘’

자료: 네이버 블로그(내 마음의 미루나무)

암튼 백제를 평정했다는 이 비의 비문에는 백제 멸망의 원인,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한 당나라 군대의 동원 과정과 전투에 참가했던 당나라 장수들에 대한 찬송, 그리고 백제 멸망 이후의 처리 내용을 새겨놓았다. 이 문장은 당나라 학사(學士)인 하수량(賀遂亮)이 짓고 권회소(權懷素)가 썼다고 한다. 이 비문에 관해서 『부여군현지』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살펴 보건대 평제비는 『동국여지승람』의 소위 蘇定方婢이다. 『동국여지승람』에서 이르기를 縣 서쪽 2리에 소재하였다. 당고종이 소정방을 보내어 신라 김유신과 더불어 백제를 정벌하여 멸망시키고는 돌을 세워 功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지금 그 비석은 縣 남쪽 2리인 校村에 있다. 五層塔을 쌓았는데, 위 4층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지 않고, 아래 1層은 높이가 1丈쯤 되

는데 4면에 4片씩 있다. 제1편에는 篆字로 ‘大唐平百濟國碑銘’이라는 8字가 있고, 楷書體의 작은 글자로 ‘顯慶五年歲在庚申 八月己巳朔十五日癸未建 洛州河南 權懷素書’라는 27字가 있다. 제2와 제3片은 각각 6行이다.”

혹자는 소정방비가 정림사지 5층 석탑의 평제비(平濟碑)가 아니라 별도의 장소에 있다가 이후 소실되었고 석탑에 남아있는 소정방비는 복각됐다는 주장도 있으나 현재까지의 고증에 의하면 지금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의 평제비가 소정방비로 인정되고 있다.

● 소정방, 의자왕과 함께 기억해야 한다.

당나라 장수 소정방(본래 이름은 烈)은 하북 출신으로 당태종 때부터 동돌궐 정벌에 참여하면서 꾸준히 전공을 쌓아왔고 결정적으로 서돌궐 원정을 통해 당나라를 대표하는 장수로 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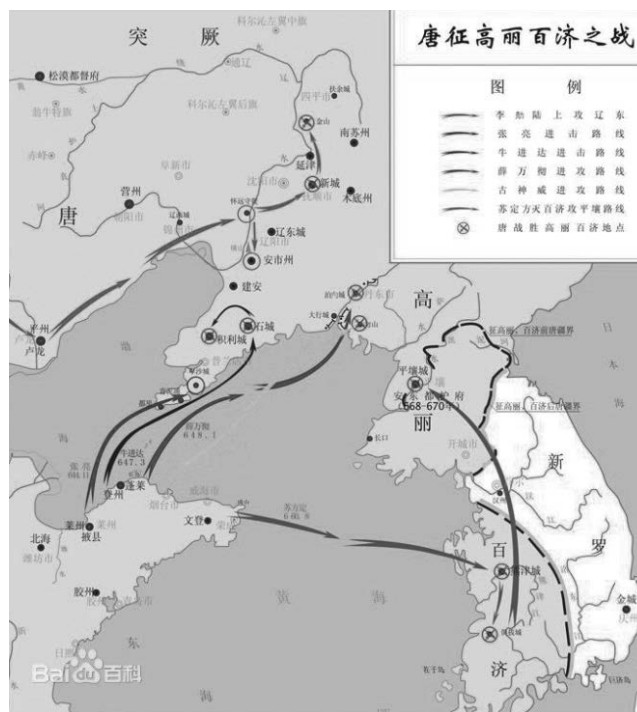
<그림 4> 소정방의 초상화

자료: 바이두백과

그는 660년 3월 당나라 13만 대군을 이끌고 서해를 건너 백제를 침공하였다. 『구당서』에 소정방은 지금의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지역인 성산(成山)에서 바다를 건너 熊津江口(웅진강구)에 이르러 江口(강구)를 지키는 백제군을 격파하고 곧장 백제의 왕도로 가서, 신라군과 함께 공격함으로써 의자왕의 항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이재준, 2016)
의자왕은 나당연합군이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공격하자 그곳을 버리고 웅진으로 달아났다.

웅진은 당시 군사도시로써 예씨 일족의 세력 근거지였다. 의자왕을 맞은 예군과 예식진 형제는 18만 명에 이르는 나당연합군에 대적할 수 없다고 여기고 반란을 일으켜 의자왕을 붙잡아 연합군에 넘기고 투항했다.

이후 소정방은 의자왕과 왕자를 비롯한 1만 2천여 명의 백제 포로를 데리고 당나라로 돌아갔다. 당나라에 도착한 의자왕은 당 고종 앞에 끌려가 치욕을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서 죽어 낙양 북쪽의 망산(邙山)에 묻혔다. 그런데 그를 나당연합군에 바친 예군과 예식진 형제는 그곳에서 높은 관직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천수를 누렸다고 한다.



<그림 5> 당나라의 고구려, 백제 침략도

자료: 바이두백과

● 백제의 한, 실패한 외교에서 교훈을 얻자.

소정방은 당나라 군대를 이끌고 한반도에 들어와 신라군과 함께 백제를 침략해 백제를 멸망시킨 원흉이다. 그리고 그의 백제 평정의 역사는 고스란히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 기록되어 후세대에 치욕을 남겼다. 소정방의 백제 침략은 아픈 전쟁의 역사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또한 한국과 중국의 교류의 역사이기도 하다.

소정방은 한반도에 들어와 많은 흔적을 남겼고 그의 군대가 포로로 데리고 간 의자왕과 1만 2천여 백제인들은 중국 대륙에서 한 많은 삶을 살았다. 이러한 아픔의 역사도 우리에게서 모

두 소중한 자원이다. 백제는 중국 남조와 북조의 문화를 받아들여 한 때 문화부흥과 경제부강을 이룩했지만 당나라와의 외교 관계 미숙으로 결국 그들에게 당하고 말았다. 소정방이 백제인에게는 원수이지만 그의 행적을 잘 기록하고 알리는 작업도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중요한 일이다.

소정방이 백제를 평정하고 의자왕의 항복을 받아낸 곳은 다름 아닌 웅진성, 즉 지금의 공산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공산성을 찾지만 소정방이 공산성에서 의자왕의 항복을 받고 그를 포로로 데려간 역사는 알지 못한다. 이제라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패전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이다. 그러한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권덕영(2014), 백제 멸망 최후의 광경, 〈역사와 경계〉 제98집, pp.1-29.
 나무백과: 소정방
 바이두백과: 소정방
 이다운(2012), 백제 정림사 창건을 통해 본 대중관계, 〈중국사연구〉 제81집, pp.197-222.
 이도학(1997), 정림사지 5층 석탑 비명과 그 작성 배경, 〈선사와 고대〉 제8집, pp.105-111.
 이재준(2016), 660년 소정방의 백제 공격로에 대한 군사학적 연구, 〈軍史〉 제98호, pp.1-36.
 한국고고학사전: 정림사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부여정림사지
 한국사전연구사 한국불교미술대전: 정림사지 5층 석탑

「충청중국포럼 소식」

제30·31회 충청중국포럼

제30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지방자치단체 중국교류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 2018년 4월 25일,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충남 당진시 합덕읍 민원팀장 심장보 주무관이 “지방자치단체 중국교류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 포럼에는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 충남도 미래정책과 환황해팀 신현배 팀장, 이정아 주무관, 충남도 기업통상교류과 최성민 중화권팀장, 각 시군 중국교류 담당 공무원, 당진 시로 파견된 중국 옥환시 국제교류 담당 공무원이 참석하였다.
 - 심 주무관은 본인의 중국 파견경험을 토대로 기초 자치단체의 대중국 교류 추진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림1> 단체사진 및 심장보 주무관 발표사진

- 심 주무관의 강연은 크게 파견공무원이 본 중국현황, 지방자치단체 중국교류 추진현황 및 문제점, 중국교류 활성화 방안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 첫 번째 부분에서는 파견 당시 현지 공무원과 일반시민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했던 경험을 소개하였다.
 - 캠페인 홍보 시 현지 중국인들이 한국과 한국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파견근무 당시 방영되었던 한국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이 뜨거웠고 이를 통해 한류 열풍을 실감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또한 한국김치와 당진 ‘해나루쌀’ 시식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 및 충남 농산물에 대한 호응도가 낮지 않음을 확인하였다고 말하였다.

- 현지생활을 통해 한중 음식문화가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으며, 중국 IT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말하였다.

● 두 번째 부분에서는 충남 시군별 중국교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 충남 15개 시·군 중 아산시의 경우 규모나 업무범위에 비해 업무 담당자 수가 적은 편이고, 공주시는 중국과의 교류가 거의 없으며, 논산시와 당진시는 비교적 활발히 대중국 교류를 추진하는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 국제교류 관련 예산은 서산시, 태안군 등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편, 국제교류업무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조직구조, 전문 인력 및 전략부재, 예산 부족, 공무원 위주의 인적 교류, 외부지원기관과의 협력 부족 등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다.

● 세 번째 부분에서는 충남의 중국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구조적 측면에서는 국제교류업무와 국제통상·투자유치업무의 상호연계, 언어적 역량이 뛰어난 전문 인력 충원, 국제교류 예산 확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외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 운영 측면에서는 자매결연의 내실화, 정기적인 인적교류와 사후관리, 태권도, 전통음악 등 문화교류 추진, 자매도시 간 특산품 교류회 추진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 발표가 끝난 후 참석자들 간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부여군 대외협력팀장은 사드문제가 발생한 이후 부여가 주로 추진하였던 충남-중국 간 청소년 교류가 단절된 상태라고 말하며 조속한 교류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 논산시 대중국 교류업무 담당자는 논산시가 현재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논산시는 요녕성 금주시, 하북성 낭방시, 산둥성 제녕시와 우호교류 중이고 지역 특산품인 딸기의 수출을 위해 홍콩과 MOU를 맺었다고 전하였다. 또한 봄철 딸기축제와 가을철 젓갈축제에 중국을 포함한 해외 교류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할 예정이라 말하였다.
-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이번 발표가 실무담당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당진시와 산둥성 일조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한국어말하기대회’같은 행사를 도 차원에서도 추진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 특히 이러한 행사를 충남소재 대학들과 연계하고 해당 대학 내 중국유학생들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는 도와 시군의 국제교류 담당부서가 서로 업무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본 포럼소식에서 사용된 중국의 지명은 가급적 중국어발음으로 표기했지만 한자의 한국어 발음이 익숙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표기함
문의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041-840-1175, quanchfu@cni.re.kr)

제31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재조명

- 지난 5월 30일 충남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가 “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 재조명”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 포럼에는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 충남도 미래정책과 환황해팀 신현배 팀장, 도 및 각 시군 중국교류 담당 공무원, 기타 항일 독립운동에 관심 있는 각계 인사가 참석하였다.



〈그림1〉 단체사진 및 박경철 박사 발표 사진

- 이번 포럼에서는 여성 항일 독립운동가 이화림의 항일운동과 당시 그녀와 함께 했던 항일 운동가, 중국 내 관련 유적들을 소개했다.
 - 이화림의 중국 내 항일운동은 “3.1혁명”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주로 상하이, 광저우, 난징과 타이항산지대에서 펼쳐졌다.
 - ▷ 이화림은 3.1혁명 이후에 상하이에서 김구 선생을 만났고, 윤봉길 의사의 거사를 도왔다. 윤봉길 의사의 폭탄투척 사건 이후 독립운동이 소강상태에 빠지게 되자 광저우 중산대학 간호사과정에 입학했으나 1935년 윤세주의 연설을 듣고 감동 받아 난징으로 가서 항일운동을 계속 했다. 난징에서는 조선민족혁명당 부녀국 의료보건의사업의 책임을 맡았고, 김원봉, 윤세주 등과 함께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세웠다. 난징대학살 이후, 일본군의 침략이 거세지자 조선민족혁명당과 함께 중경으로 이동하여 1938년에는 조선의 용대를 창립하였다. 그 후 타이항산지구와 옌안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해방을 맞았다.
 - ▷ 한국전쟁 시 조선인민군 위생소 소장으로 복무하던 중 미군의 폭격에 부상을 입고 심양으로 복귀했고 그 이후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해방 후, 연변조선족자치주

위생국 국장, 연변자치주 당대표 등을 역임했고 노년에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다가 1999년 2월 향년 95세로 삶을 마감하였다.

- 박경철 박사는 윤봉길, 김좌진, 한용운 등 충남 출신 독립 운동가들을 언급하며 충남 출신 독립 운동가들이 대한독립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들 외에도, 박헌영, 이현상 등 우리 역사에 잘 알려지지 않은 충남출신 사회주의 독립 운동가들의 공헌 역시 적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 박경철 박사는 2010년과 2016년에 각각 북경대학 한국연구생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회원들과 조선의용군 유적지들을 둘러보면서 찍었던 사진들을 소개했다.
▷호가장 전투지와 의용대원 묘지, 마전 팔로군 총사령부, 십자령 정상과 윤세주 열사, 진광화 열사의 묘지 등을 소개하였다.
- 박경철 박사는 마지막 순서에서 충남도에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하였다.
▷충남도-허베이성 간 항일 역사 교류 추진, 여성독립운동기념관 설립, 이념을 초월한 독립운동의 역사 기념사업 등이 향후 충남도의 대중국교류에 있어 상당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발표를 마치고 [도율이 본 한국독립운동사] 제7부 “십자령에 뿌린 의혈”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제7부에서는 윤세주 열사와 진광화 열사를 기념하며 십자령 전투와 조선의용대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 종합토론에서는 도 및 시군 중국교류 담당자들의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 충남연구원 홍원표 박사는 충남의 항일운동 역사가 중국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항일운동을 지역 간 외교에 접목할 필요가 있고, 특히 최근 5년 동안 긴밀한 교류가 없었던 충남-허베이성 간 외교관계를 강화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 박경철 박사는 밀양시 의열기념관 개관 소식을 전하면서 유관순뿐 아니라 충남의 다른 여성 항일 운동가들도 재조명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 송두범 박사는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바로 건립하는 것보다 하루 빨리 항일운동과 관련된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겨 향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 도 미래정책과 환황해팀장은 대중국교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사드갈등 이후 충남-중국 간 교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며 오늘 발표 내용을 향후 실무에서 활용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 본 포럼소식에서 사용한 중국 지명은 기본적으로 중국어 발음을 준용하여 표기하였으나 한자의 한국어 발음이 익숙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표기함

문의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041-840-1175, quanchfu@cni.re.kr)

■ 중국동향과 진단 발간목록(2015.6~2018.6)

호수	발간월	주제
제1호	2015년 6월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건설과 중국의 국토발전촉
제2호	2015년 7월	신상태 시대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제3호	2015년 8·9월	징진지 지구 일체화 정책 추진 동향과 충남의 시사점(합본호)
제4호	2015년 10월	중국 삼농문제의 연원과 관련정책 동향
제5호	2015년 11·12월	산둥성 남색경제 발전전략(합본호)
제6호	2016년 1·2월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
제7호	2016년 3·4월	한중 FTA 발효가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제8호	2016년 5·6월	방한 '요우커' 충남 유치전략
제9호	2016년 7·8월	중국 구이저우성의 현황과 충남의 대응전략
제10호	2016년 9·10월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제11호	2016년 11·12월	중국내 한중산업단지의 설치 동향
제12호	2017년 3·4월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준비 현황과 과제
제13호	2017년 5·6월	중국 대기오염의 현황과 시사점
제14호	2017년 7·8월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시장 동향과 시사점
제15호	2017년 9·10월	생태문명 전략과 농촌 개발: 중국 현대 농업정책의 해석
제16호	2017년 11·12월	중국 수산업의 최근 발전 동향
제17호	2018년 1·2월	중국 전기자동차 발전 현황과 시사점
제18호	2018년 3·4월	2018년 중국 양회(兩會)의 주요 이슈 및 충남에 대한 시사점
제19호	2018년 5·6월	충남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변화와 시사점 : 1차 산업

※ 발간된 내용은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